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83 1982년 11월 18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November 18, 1982

NOV 1 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82년 10월말이후 집주인 바뀐 아파트

5% 이상 못올린다

「온」주 새렌트 규제안 마련

온타리오 주정부는 16일 아파트의 임대주가 바뀔때 올릴 수 있는 법적 렌트인상률을 5%로 제한시키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40%정도 렌트가 오를 것을 우려한 전 캐딜락·페어뷰 임대자들은 마음을 한시름 놓게됐다.

온타리오 주의회가 금주말이나 내주초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새 법안이 통과되면 82년 10월31일 이후 매매된 아파트빌딩의 주인은 유지비나 보수비증액으로 인한 것이외에 건물주인이 바뀐데 따른 렌트증액은 5%로 제한된다.

새 렌트규제법은 금년 10월31일이후 84년말사이의 모든 렌트인상 요청에 적용된다.

한편 밥·엘지 「온」주 소비성장관은 주정부의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76년이후 발효된 온타리오주의 렌트규제법을 전면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이같이 새로운 렌트규제법을 제정할 것은 그레이맥회사가 2억7천만달러에 구입하려던 캐딜락·페어뷰회사의 아파트 73개소 10,931채가 5억달러라는 2배의 가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가들의 손에 넘어간 직후 이루어졌다.

새 렌트규제법이 실제 임대자들에 미칠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년 10월31일 이전 매매된 아파트 빌딩의 경우 새 집주인은 모기지 갱신들에 드는 제반 경비와 유지비증가분 충당에 드는 만큼 렌트를 올리기 위해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렌트검토위원회는 이를 검토후 판결을 내린다.

▲82년 10월31일이후 83년말 이전에 팔린 빌딩에 사는 경우 집주인은 집매매로 인한 재정경비를 이유로 인한 렌트증액은 5%로 제한된다. 그러나 유지비 증액으로 인한 경비는 별도로 렌트인상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한달에 $500의 렌트를 내고 있다면 집주인은 지금까지의 규정대로 연6%(즉 30달러)를 자동적으로 렌트검토위의 승인없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인 임대자는 렌트검토위에 항의, 연6%이하로 인상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집주인이 렌트검토위에 유지및 보수비가 연6%의 렌트인상으로 커버되지 못함을 입증할 경우 연6%이상 인상을 허가 받을 수 있다.

디펜베이커 보수당정권 에트닉 기밀책자 발간

(오타와)캐나다에 거주하는 소수민족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비밀 핸드북이 고 존·디펜베이크가 이끈 보수당 행정부에 의해 출판되었다고 자유당측이 비난했다.

스지·조알 국무장관은 17일 하원에 출두, 이 비밀 핸드북의 개정판이 1974년에 출판되었으며 원판은 "1960년 전에 다른 행정부"를 위해 편찬되었다고 폭로했다.

"A Revised Handbook of Selected Ethnic Organizations in Canada"라고 표제가 붙은 이 책에는 에트닉그룹의 목적, 회원수, 활동, 출판물등이 상세히 수록되어있다.

조알장관은 연방정부의 핸드북이 디펜베이크 행정부를 위해 처음으로 출판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다만 이 정보가 디펜베이크의 참모들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디펜베이크는 57년부터 63년까지 수상을 지냈다.

한편 복합문화성의 제임스·플레밍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자신은 그런 책이 있는줄을 12일 전에야 알았으며 지난 8년간 이 책이 사용된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눈좀 뜨거라" 김득구모친 애절한 절규

◆비통에 빠진 김선수 모친 양선녀씨.

(라스베가스)"에야, 눈좀 떠보아라"하는 모성의 눈물겨운 절규도 소용없었다.

13일밤 링에서 쓰러진채로 의식을 잃은 프로복서 김득구선수의 어머니 양선녀(65)여사는 16일밤 라스베가스 디저트·스프링병원에 도착, 어쩌면 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단 15분간의 면회가 허락된 양씨는 큰아들 근영씨와 같이 병실로 들어가 "눈좀 떠라. 네 잘못이 아냐. 엄마와 형이 왔어"하며 애소했으나, 김선수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

양씨와 함께 동행해온 관계자들에 의하면 김선수의 어머니는 LA에서 한의사 4명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 마지막 치료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병실출입이 허락된 후

한의사4명 침술치료 시도 "아직 희망은 있다"

김선수를 살펴본 한의사 김창근박사는 "절망은 아니다. 기다려 보아야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양씨는 한국서부터 약초를 가지고 왔다면서 "아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16일상오 LA에 도착한 양씨는 아들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구명기(인공호흡기)를 떼어 아들의 안락사를 허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다.

병원당국의 담당의사 로니·헤메그렌씨는 수술후 아무런 변동상태가 없다면서, 안락사에 대한 결정은 김선수 가족과 상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하고, 가족들이 원하면 침술치료등 무슨 제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헤메그렌씨는 "김선수 생명은 인공호흡기등에 의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수를 14회에 녹다운시켜 죽음직전으로 몰아넣은 WBA라이트급 챔피온 맨시니선수는 "돈이 수억달러라도 생명과는 비교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장래에 대해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1900년뒤 발견된 화산 폭발의 희생자들

◆지중해 해안의 헤르쿨라눔에서 1900년전 있은 화산폭발로 떼죽음 당한 80명의 해골이 최근 발견됐다.

사진은 작은 보석이 박힌 금반지를 끼고 죽은 여인의 유골이다.

이 해골들의 발견으로 화산이 폭발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도망치려고 애썼음이 밝혀졌다.

이 화산의 폭발참상은 「쿼·바디스」, 「벤허」, 「파비올라」와 세계 4대 고전순교소설의 하나인 「폼페이 마지막날」등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교포이웃 가장한 모국친지 사기 성행

(LA지사)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의 친구나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서울 등지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미조리주 콜럼비아에 거주하는 이철남씨(35)가 7일 자정 처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으로 국제전화하는 중에 발견되었는데 이씨의 처제 결혼식을 앞둔 잔치집에 낯선 청년이 찾아와 미국에 거주하는 이씨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뒤 이씨부인이 해산달이어서 인삼 3박스, 내의, 이불, 옷가지를 가져 오랬다면서 인삼은 미국이 싸니까 현찰을 요구하더라는 것.

마침 잔치집이어서 누구를 상대할줄도 모르고 이씨 처가에서도 용돈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내 결국 사기는 당하지 않았는데 한국으로부터 이와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이씨는 어이가 없다면서 다른 교포들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의미에서 이같은 소식을 알려왔다.

지난봄 이와 유사한 사기를 당했던 유학생 부인 이모씨(31)도 서울 시댁에 보낸 편지가 잘못 전달돼 그 편지 때문에 서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한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불명확한 주소로 편지를 보낸다거나 잘알지 못하는 인편으로 물건이나 송금을 부탁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社告

해방37년이 넘었으나 「독립관」이 없읍니다.

소련까지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시대를 회상해서 조국은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일제의 설움을 같이 당했던 우리는 외국에 산다해서 이 운동을 외면하겠읍니까?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금 액 : 다소불문
기 간 : 1982년 10월말까지
보낼곳 :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 (416)533－2361
※수표작성(Payable to…)은 The Korea Times앞.
※전봉이나 수표에 「독립기념관」기금」이라고 쓸것.

◆모금상황(11월15일 현재)
이상복 : $50
김성중 : $50
소 계 $100
누계 : $2,490

－토론토 한국일보사－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반품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출발일자 11월14일(일) 11월25일(목) 12월 5 일(일) 12월16일(목) 12월19일(일) 12월30일(목)
자유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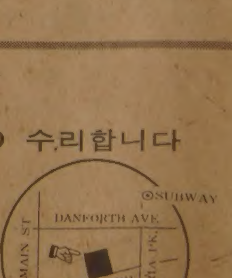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여행계획과 간편한 수속,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겠읍니다.
SEOUL TRAVEL
631 A BLOOR ST. W
최 동 주
R)293-9970
IATA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SPECIAL OFFER!
$1199.00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 V VIDEO 염가판매
● T 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 광래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KNOX College
Mr. Soo Am Park
59 St. George St West House
#201 Tor On M5S 2E6

프로버즈씨 유죄판결
경찰비위 폭로 증거불구

경찰의 비위를 폭로함으로써 논란의 중심이 됐던 증권중개인 닐·캐머론·프로버즈씨는 16일 카운티·코트 배심원들로부터 불법무기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주간 계속된 극적인 재판결과 유죄를 받은 프로버즈씨는 자신을 체포한 조지·레이놀즈경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음, 경찰이 피의자의 불리한 위증은 물론, 수사및 재판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폭로했었다.

레이놀즈경위는 자기 말중 80%가 프로버즈씨로 부터 마약밀매사건에 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작전상의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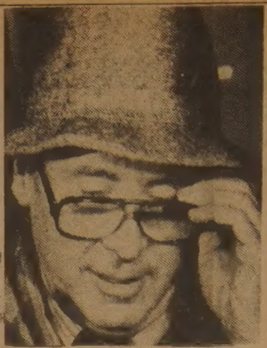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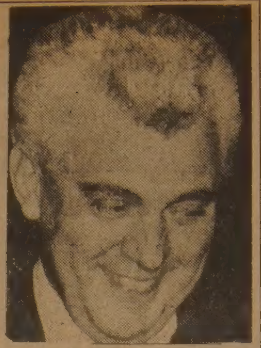
프로버즈씨는 지난 80년 자기 아파트 부엌에서 엽총을 들고 있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레이놀즈경사와 벌리드 경사는 프로버즈씨를 다른 혐의로 추적하던 중 아파트문을 부시고 들어가 프로버즈씨를 체포했었다. 원래의 혐의가 벗겨진 뒤에 경찰은 프로버즈씨를 불법무기소지죄로 다시 기소했다.

기소된 프로버즈씨는 마약밀매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구실하에 자기를 체포한 경찰을 저녁식사에 초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해 두었었다.

그후 프로버즈씨는 재판정에서 레이놀즈경사가 자기와 대화중

◉"법관은 형사사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전 미리 경찰로부터 보고를 듣고 판결내용을 결정하며,

◉경찰은 기소내용을 확고히 하기위해 위증을 서슴치 않는다"는 등의 경찰과 법조계의 비위를 폭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녹음테이프를 제시했다.

◆불법무기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프로버즈(왼쪽)씨와 그를 체포했던 레이놀즈형사(오른쪽). 프로버즈씨는 레이놀즈형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었다.

상협 이사진 보강
$8천 예산안 통과

지난 10월16일 발기총회를 가진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회장 조병역)는 지난 12일 제1차 이사회를 갖고 8천달러의 예산안과 이사보선등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홍보담당이사 임윤식씨가 사임함으로써 그 후임에 장해웅씨(오리엔탈 바자경영)가 임명되었으며, 홍인문(무역업), 최광현씨가 이사로 추가 선임됐다. 이로써 발기당시 27명의 이사진(이사장 김무호)이 30명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가입업체도 늘어나 11월현재 모두 45업체가 되었다.

12일 서미트·칸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는 22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자리에서 1년회비와 찬조금으로 8천달러를 모금했다.

조회장은 16일 앞으로 적진적으로 협회 활동을 확장할 것이라면서 상공인협회의 로고현상모집에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공인협회 로고는 당선작 5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지며, 가작2편에도 소정의 수고비가 지급된다. 응모작은 오는 12월10일까지 Toronto Eaton Center P.O.Box 330 Tor. M5B 2H1로 보내면 된다.

Y사업 모금 겸해
크리스마스만찬회

크리스마스 계절이 다가와 각 단체는 점차로 성탄파티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한인Y(이사장 전태균)·베타클럽(회장 홍승규) 공동주최로 열리는 올해 크리스마스 만찬회는 한인Y사업을 위한 보금만찬을 겸해 12월10일(금) 토론토 한인Y회관(931 College St. Tor.)에서 열린다.

해마다 범교민적 성탄파티로 유명한 이 Y만찬회는 한인YMCA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교민도 참석할 수 있다. 회비는 $25.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충현교회
부흥성회

충현교회(240 Manor Rd. Toronto) 는 17일(수)부터 21일까지 5일간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하오7시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는「주여, 무엇을 하리이까?」이며, 강사는 동교회 담임 박경남목사이다.

부흥성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446-1211, 또는 483-0695.

"리즈"에 새남성
55세변호사

결혼·이혼의 베테랑인 은막의 큰 별 엘리자베스·테일러에게 새로운 남성이 생겨 화제를 모으고 있다.

8번째 결혼의 상대가 될지도 모르는 남성은 착실하고 대머리인 55세의 변호사 빅터·곤자레스·루나로, 그는 이제까지의 리즈의 남편들과는 다른 타입의 남성이다.

사회적으로 유명인사가 아니어서 리즈의 주위 사람들에게 별명 "Mr. Nobody"로 불리우는 그는 미국인들의 멕시코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고 있다.

루나씨는 현재 부인과 별거중이며, 성장한 자녀 5명이 있다.

리즈와 루나는 6개월전부터 교제해왔으나, 공개석상에서 다정한 모습을 드러내기는 몇주전부터이다.

이들은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권위있는 스코퍼스 시상식을 비롯, 유명한 체이슨식당과 마·메이슨식당 등에도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소 론〉 ①

네 자신이 되라

박 희 민(본지 논설의원)

◆박희민 논설위원

자기 자신이 되는 삶처럼 귀한 것이 없다. 행복한 삶과 값있고 보람있는 삶은 자기 자신이 되는 길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을 살려감으로 자기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모방이 아닌 창의적인 삶은 자기 자신이 되는 삶에서만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한국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삶의 노력이 몹시 아쉬운 것같다. 좀더 자기로서의 Life-Style을 개발해 잖으면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적성이나 취미나 능력을 따라 전공을 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려는 것보다 부모가 하라니까,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식이다. 누가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너도 나도 "와!"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로서의 삶이 결여된데서 오는 현상이라 하겠다.

인간은 모두 자기로서의 개성이 있다.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자기 대른 개성이 그들에게 있는 법이다. 물론 주어진 환경과 타고난 천품이 그러한 개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나는 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다. 물건에는 대용품이 있지만 삶에는 대용품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리해 살 수 없는 것이다. 희랍의 철인 쏘크라테스는「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교훈을 남겼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을 상실할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 자기의 뿌리(Root)를 알아야 하고, 자기의 현주소를 알아야 한다. 또 내가 가야할 삶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치 않고 기여하고 공헌하며 살려면 자신의 언어를 잃지 말아야 하고,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한다. 또한 이 사회를 알아야 하고, 이중문화권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 가치관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터득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점과 결점을 알아야 한다. 자기의 장점을 아는 것은 뽐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더 개발해 가기 위함이며, 자기의 결점을 아는 것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기 위함인 것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야 하고, 영적유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자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에멀슨도「너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남도 존경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계 속)

바로 잡음

본지 17일(수)자 제1면의 "워커톤 모금 $2만" 기사중 수상자들의 명단및 순위가 잘못 나갔읍니다.

바로잡은 명단및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약정자수(순위)〉	〈모금액(순위)〉
고종옥	253명(1)	$2,478.00(1)
이용일	109명(2)	$691.00(4)
천중환		$1,975.00(2)
서혜석	66명(4)	$646.50(5)
김희삼	31명	$1,800.00(3)
정철기	42명	$470.00(8)
조남유	25명	$475.00(7)
김명규	25명	$600.00(6)
정승찬	60명(5)	$269.00
송병헌	70명(3)	$215.00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11〉

29분의 1 ⑯

초조한 朴文子는 오빠집에 전화를…

『너한테 뭘 묻던?』

『이 집으로 이사오기전에 어떤 키큰 남자가 집에 찾아온 적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했어요.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고…….』

『들어온지 얼마 안됐다고 그랬어?』

문자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기 때문에 가정부는 멈칫했다.

『네,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이야기 했지요.』

『그래, 잘했다. 들어온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어?』

『보름밖에 안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뭘 묻던?』

『어떻게 이집에 들어오게 됐느냐고 해서 부산 아줌마 소개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문자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꾹 참았다.

경찰은 피살자의 이름이 모세(毛世)라는 것 까지 알고있다. 그리고 철민이 말에의하면 두장의 몽타지까지 그려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그중 한장은 오빠와 닮았다고 했다. 나머지 한장은 모세의 몽타지일 것이다. 아까 그 형사는 나한테 그 몽타지들을 보이지 않고 돌아갔다. 취했기 때문일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러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결정적일때 가서 내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의심이 풀려 그런 것들을 보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아뭏든 형사들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그녀는 몸서리가 쳐졌다. 어떻게 할까.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 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가정부를 밖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이번에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올케가 전화를 받았다. 오빠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했다.

『들어오시는대로 빨리 집으로 전화 좀 해 달라고해요.』

목이 바짝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술을 들이켰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히 젖어있었다.

그녀는 전전긍긍 하다가 경비실로 내려가보았다.

경비가 일어서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일부러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밤에는 추우시죠.』

『뭐, 괜찮습니다. 난로를 피우니까 춥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형사들이 왜 찾아왔지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전 깜짝 놀랐읍니다.』

『여기와서 무얼 묻던가요?』

그녀는 가볍게 질문을 던지고나서 귀를 기울였다.

『아, 네…묻긴 물었는데…에…그러니까….』

경비는 기억력이 나쁜지 머리를 긁적이고 나서 말했다.

『뭐 외간남자가 혹시 905호에 드나들지 않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런적없다고 그랬지요. 별 시시한 걸 다 조사하고 다니더군요.』

『그 밖에 또 뭘 묻던가요?』

『에…철민이 아빠가 젊은 나이에 일찍 출세하셨다고 그러기에 저도 사실이 그렇다고 그랬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밖에 또 다른 건 묻지 않았나요?』

『네, 그밖에는 뭐 별로 묻지않았읍니다. 가만 있자 수첩에다가 뭘 적던데….』

朴 男 그림

〈유인형수필선〉

헤 리 티 지

「덩기 덩기 덩더쿵!」

노인회의 농악에 맞추어 어깨춤이 흥겹다. 46개국이 참가한 지구촌의 축소판 행사이다.

이웃에선 삼바, 폴카, 인디언춤들이 한창이다. 하와이안의 훌라춤, 스페인의 투우사춤, 우크라니언의 피상망측한 민속춤, 무작정 흔들어대는 영연방아의 섬나라춤, 간사스런 하오리들의 벚꽃같은 춤, 인디언들의 괴성과 함께 빙빙 돌아가는 춤, 아프리카의 색정적인 춤등이 헤리티지공원안에서 벌어진다.

춤만 구경하려해도 하루종일 걸린다. 춤이란 기후와 그 민족의 염원에 따라 발달되어 나온 것같다. 각양각색의 춤들이다.

「저 배꼽춤 좀 봐!」

「저 노브라춤 좀 봐!」

「창피하게 어딜 들여다 봐요?」

춤구경을 하려면 혼자서 다녀야겠다. 이런 곳까지 마누라와 아이들이 경호원처럼 따라다니니 어디 쩍쩍 들어 울리는 춤이야 볼 수가 있나. 저건 상품화된 춤이고, 이건 정신을 쏙 빼버리는 짙시들의 춤이고, 저건 또 뭐냐? 해적인 바이킹들의 흉칙맞은 리듬이 표현되어 있구나. 역시 춤이란 신명 나야 하는 것이니까.

장구, 날라리, 호적, 꽹가리등을 두들겨대며 한바탕 흥이 나는 농악이 최고지 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빙빙 돌면서 어울리고, 흩어지면서 무형의 유산을 보여주고 있다.

「춤에는 마당굿이 최고라고!」

「뭐에요. 이젠 무당춤도 춰요?」

두팔을 번쩍 들어올렸더니 여럿이 말린다. 제발 말리는게 좋겠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이번에는 태권도 시범이 벌어진다. 일본관의 저 가라데 갖고서는 비교가 안된다. 호랑이 앞에 고양이 격이다. 나오자 마자 이마로 벽돌을 박살내 버린다. 휘익 돌면서 몇사람이 쳐들고 있는 송판쪽이 보기좋게 격파된다.

「차렷, 경례, 태권!」하는 구호는 우리말이다. 시범전과 후에는 반드시 태극기에 경례를 부친다. 금발의 아가씨가 불구덩이 속으로 날아가 두꺼운 송판을 조개 버린다. 무시무시한 괴력이다. 눈들이 휘둥그래 갖고서 모두들 입을 벌리고 있다. 맷집 좋은 거인남자가 유단자 아가씨에게 정신 없이 얻어맞고 있다.

「잘한다. 못된 남자는 좀 패줘야 해요!」

「누굴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요?」

칠칠치 못한 남자같으니라구. 태권도를 배운 아가씨인 줄 모르고 정말 입자 만났나 보다.

어느 유단자는 왼쪽 가슴에다「태권」이란 문신을 새겨 놓았다. 태권도의 겸양과 불굴의 정신을 다루어 배우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국제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참으로 잘한 처사이다. 아무렴, 온세계가 태권도를 모를터이 있는가.

「어스름 달밤에 개구리 우는 밤…….」

저건 또 무슨 뚱단지같은 합창인가?

사범이 끝나자 한국관 뒤로 가본다. 한인회임원들이 흥이 난 것이다.

「자 어서 옵쇼.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불고기와 김치요!」

정말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는 불고기와 김치이다. 몇줄씩 줄을 서서 시식하기에 바쁘다. 하긴 한국관을 찾아오려고 신경쓸 필요는 없다.

파, 마늘양념에다 살짝 정종을 한잔씩 부었다가 하룻밤 재운 불고기는 그대로 살살 녹아내리는 별미이다. 거기에다 냄새 한번 요란하여서 사방팔방 온통 불고기냄새인데, 다행히도 모두들 좋아하는 것이다. 어디서나 이 냄새만 따라오면 그곳에는 밤새도록 기와집을 그려붙인 한국관이 나타난다. 솜어있는 미술가의 협조로 올해는 말쑥한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저 파란눈은 총각김치만 좋아하여!」

「얘다 이게 마지막인디, 아가씬 아무래도 한국으로 시집을 가셔야…….」

불고기와 김치, 잡채가 모두 동이 났다.

「값을 십배로 올려 받아!」

「어히, 값 올리는게 한국관이야?」

걱정할 것은 없다. 각음식점과 식품점에서 장사도 마다하고 속속 도착하고 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신바람이 나면 무엇이나 척척 맞아 떨어진다.

「강강 수월래, 강강 수월래!」

화사한 궁중옷을 입은 김영숙무용단이 나타났다. 알버타의 독보적인 재산인 김영숙여사의 민속춤에 각종TV의 앵글이 맞추어진다.

익살과 해학의 탈춤 속엔 신비스런 마력이 숨어있다. 화관무와 부채춤, 승무와「한오백년」을 지나서 아이들의 귀여운「꼭둑각시 춤」이 박수갈채를 받는다.

「나도 나가야지. 춤에는 지게 작대기 두들기는 실력을 보여줘야 해!」

「맙소사. 이 국제무대에다 페인트칠을 하려고 발작이 나는가 봐!」

또 아이들이 잡아 끄는 바람에 슬그머니 뒤로 물러선다.

그런데 저 친구는?

「날 좀 보소. 나알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자, 정력강장제요!」

거기도 야단이 났다. 줄을 서서「정력강장제」를 사기에 바쁘다. 가나 오나「정력에 최고요!」하면 난리가 난다. 이젠「고려인삼차」도 동이 나는 모양이다. 왜「정력」에 좋으냐고 고객들이 묻고, 정말「다티김」이 진땀을 빼고 있다.

다시 토산품을 팔고 있는 곳으로 가본다. 토산품이 빈약하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쉬드같이요.」

「식칼이라!」

한글 알파벳으로 기념이름을 써주는 곳도 있다. 여기도 줄을 서서 붓글씨를 바라보며 신기해 한다. 굵직한 붓대가 무게 있어 보인다.

「이봐요. 무식하게 한글 명찰을 거꾸로 달고 다녀요?」

누구인가「코리안 알파벳」을 바르게 달아준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린다.

안내를 맡은 대학생들은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정말 책자를 보니 한심스럽다. 이스라엘이나 폴랜드관은 아예 책장사인양 산처럼 있다. 문화유산의 매개체인 각종서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얄미운 일본관도 태반이 책이다.「불고기와 태권도만 갖고서 안되겠구나!」

빵이나 주먹만 가지고선 일어설 수 없다. 정신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겠다. 솟구쳐 오르는 내면적인 신념과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겠다. 통일을 하려는 염원과 참된 편에 서서 젊어온 민중들의 뜻을 표현해 준 온갖 서적이 있어야겠다. 철학과 책이 없는 민족은 결코 부강해질 수 없으니까.

어쨌거나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열심히 협조해준 에드몬톤의 교포들이 자랑스럽다. 모두들 국제무대에 서있는 외교관들이기까.

경동동창회
망년파티

만납시다.
삼각봉의 드높은 기상을 되새기며 송구영신의 뜻깊은 밤을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0일(금)
오후8시
8시~9시 칵테일
9시~새벽1시 댄스및여흥
(DOOR PRISE · 빙고게임 · 차이니즈 경매)
장 소 : 한인회관 (20 MOBILE DR)
연락처 : 822-5093 강대영부회장
270-0229 김선영총 무

경동중고교동창회
회장 이 춘수

FLORIDA 2BD.RM. BUNGALOW $27,900

NEAR CLEARWATER !!

-20% DOWN
-¼ ACRE LOT INCLUDED
-CENTRAL AIR & HEATING
-MASONRY CONSTRUCTION
-10 MIN. TO BEACH & GOLF
-1 HR. TO DISNEY WORLD
-MANY OTHER WORLD FAMOUS ATTRACTIONS NEARBY
-HOME INSPECTION TOUR AVAILABLE

RECOMMEND AS A PROPERTY INVESTMENT !
-RENTAL & MAINTENANCE PROGRAM AVAILABLE
-RENTAL INCOME OFFSETS MORTGAGE PAYMENT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
Tel 243-0522(To 2PM) 661-3124(After 2PM)
PETER YLEE, P.ENG(이영웅)
BUK S. CHANG, P.ENG(장북섭)
KYU-YUL, CHO(조규열)
DONG-CHUN, KIM(김동천)
YOUNG-WOON, AHN(안영운)
YONG-CHUL, KWON(권용철)
SANG ROCK INC./SPRING WOOD PROPERTIES INC.
3461 Dixie Rd. Suite 503 Mississauga ☎ : 629-1242 9 : 00AM~9 : 00PM

"년말파티공고"

이웃한 선린 !
82년은 선린이 주최한 고교야구대회 행사를 통하여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 동문의 한해였읍니다.
다가오는 83년 새해를 맞이하며 경술년을 결산하는 뜻 깊은 송년의 밤을 오영준 동문댁에서 갖기로 하였사오니 한번의 선린은 영원한 선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족동반. 참석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4일(토)
8: 00P.M.
장 소 : 오영준(47회)동문자택
15 Painted Post Dr.
(마캄×로렌스북쪽)
☎ : 438-0628
연락처 : 부회장 전기덕 255-2111
총 무 최원보 625-0698
부총무 정성주 273-0763

재 캐나다 선린동문회
회장 서 병주

대형굴절버스 등장
길이 60피트, 정원 93명

메트로·토론토에 초대형 신종버스가 곧 등장한다.

이 버스는 길이 60피트로 차체 중앙이 아코디온식으로 된 굴절부분에 의해 회전할때 구부러지게 제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준형 디젤버스의 길이가 40피트에 정원이 62명인데 비해 이 굴절형 버스는 무려 93명이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TTC의 알프·세비지 총지배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굴절형 버스의 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2일부터 메트로의 첫번째 굴절형 버스가 이스트·욕의 돈크릭·팍·드라이브에 운행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정부의 교통·통신부는 메트로·토론토, 미시사가, 오타와, 해밀톤의 4개도시에 굴절형 버스를 운행케 했다.

이에 따라 TTC는 모두 12대의 굴절형 버스를 발주받아 이달 안에 모두 (1)핀치·애비뉴·이스트, (2)돈크릭·팍, (3)스틸스·애비뉴·이스트, (4)영·스트릿 구간의 에그링톤 북쪽구간등 4개 익스프레스·루트에 운행시킬 계획이다.

굴절형 버스가 운행되면 이들 구간의 버스정류장이 대형버스에 적합하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TTC측은 밝혔다.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 굴절형 버스는 가격이 대당 27만8천달러로 표준형 버스가격 133,000달러의 2배가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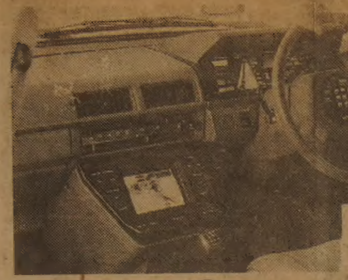
GM사 제품인 이 버스는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의 런던에서 조립 생산된다.

미국의 경우는 시카고와 시어틀에서 이 버스가 맨처음 운행되기 시작했다. 시카고에는 현재 2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145대를 추가주문하고 있다.

=교통사고에 청신호=
"졸며운전"방지장치

(도꾜)자동차 운전도중 꺼벅꺼벅 졸기 시작하면 "고달픈 모양이니, 멈추고 쉬어 가시오"하고 자동차가 알으켜 준다.–일본의 닛산자동차회사는 최근 「졸면서 운전 방지장치」를 개발, 지난 4일 교또에서 열린 제9회 ESV(안전실험차) 국제회의(미국 운수성 주최)에 출품했다.

멍청운동 특유의 핸들 갈팡질팡을 쎈서(감지기)로 감지, 마이콘으로 판단하고, 음성경보를 내는 것으로, 고속도로를 장시간 달리는 화물차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실용화는 시간문제이다.



◆「졸며 운전」방지장치한 자동차

이 시스템은 닛산중앙연구소 도구다 제일연구실장 그룹이 개발한 것이다.

졸면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뇌파를 조사한 결과, (1)멍청한 단계, (2)몽롱한 단계등 잠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과정에서 색다른 뇌파의 파형( )을 이룸을 알아냈다.

모의운전차로 실험을 거듭, 특유뇌파에 따른 핸들조작의 특징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대표적 특징을 들자면, 졸며 운전의 첫단계 멍청상태에서는 핸들조작이 느려지며, 직선주행의 경우에도 느린 "갈짓자 전진"을 시작한다. 졸더 지나 몽롱단계의 운전에 이르면 핸들의 흔들림이 더 심해져, 때때로 무의식중에 급핸들을 꺾고, 갈짓자 주행을 수정하려고 한다.

이같은 핸들변화는 정상시에는 있을수 없고, 이 패턴을 마이콘에 기억시켜, 핸들에 부착시킨 쎈서로 감지시키는 시스템이다.

시험차에서는 멍청운전때 운전석 앞쪽의 미터판넬에 부착된 황색등이 깜박거리면서 부자가 울린다. 몽롱운전에 이르러서는 빨간등이 켜지면서 합성음성으로 "휴식하라"는 경고가 들린다. 핸들조종뿐 아니라, 브레이크나 악셀레리터를 밟은 법등에서도 "이상함"이 느껴지게 하는 시스템을 연구팀은 개발중이다.

科學정보

암흑속이용 카메라개발

○…미국RCA는 완전한 암흑속에서도 사진이 찍혀지는 획기적인 카메라를 개발중이다.

카메라는 TV카메라가 빛에 감응하는것과 같은 방식으로 피사체의 온도변화에 감응하여 TV영상과 같은 사진을 찍는것이다.

이 카메라는 피사체의 모든 미세한 부분이 1도의 몇분의 1이라는 극히 적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는것을 탐지할수있는 8천개이상의 열감응소지를 10센트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용기안에 내장하고있으며 사진을 찍으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부분은 희게, 그리고 낮은 부분은 어둡게 나타나게 한다.

크기가 약1입방피트인 이카메라는 통상 3각대에 고정시켜 사용되지만 이보다 약간 작은 형은 손으로 잡을수도 있다.

20m서도식별 전자時計

○…하루24시간내내 정확하고 멀리서도 선명하게 볼수있는 시계를 필요로하는 곳에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적색발광라이오드(LED)디스플레이장치를 갖춘 전자조정디지틀시계가 개발됐다.

영국클로라이드·젠트회사가 개발한 이 시계는 1주일에 시간오차를 3초이내로 유지하는 독립된 수정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동력은 표준전원을 이용하되 비상용으로 배터리로도 작동하게돼있다.

멀리서도 쉽게 판독할수있는 이 시계는 탁상 또는 벽에 간단히 설치할수있게 돼있고 간단한 누름단추로 시간을 맞출수있다.

클로라이드·젠트회사는 이 시계를 3개의 모델로 만들어 내놓았는데 모델401은 디스플레이장치가 5cm높이로 25m밖에서도 판독할수 있고 모델420은 디스플레이높이 6·5cm에 판독거리는 30m이며 모델410은 디지틀 캘린더시계로 시·분·월일까지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높이가 4·5cm인데 20m거리에서 판독가능하며 윤년수정기능도 갖추고있다.

도서관 정보처리 시스팀

○…일본전자계산(JIP)은 최근 도서관정보처리시스팀인「한자 LM–6600시스팀」을 개발, 1백여 도서관에 납품했다.

이 시스팀은 도서관의 책대출·반환·이용자카드 또는 검색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완전 시스팀화 한 것으로 512킬로바이트(BITE), 1메가바이트, 3메가바이트등의 3종이있다.

이 시리즈의 하나인 LM–6600은 두께가 얇은 콤펙트형인데 일시에 최대 4천5백권의 수용능력이 있고 니켈카드뮴전지를 전원으로 하여 약1주간 사용할수있다.

이동도서관이나 도서관내 정전시등에 특히 사용하기 알맞는 이 시스팀의 가격은 약98만엔 (약4천달러).

5분간의 落書

로동당 창건 기념일

홍 기 만

지난6일자 〈한국일보〉에는 〈워싱톤포스트〉지에 게재된, 북경주재 이태리특파원의 평양방문기가 발췌되어 실려 있었다.

북한당국이 초청한 기자로서는 드물게 비판적이었다.

혹평과 더불어신랄한 야유마저 문장 뉴앙스로 감지할 수 있었다.

"「낙원」행 열차는 북경을 떠나 23시간을 달려「인민의 낙원」이라고 77년 공식발표한 북한의 수도 평양에 닿았다."로 시작되는 이 기행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김일성이 산 날짜와 같게 2만5천5백50개의 돌을 쌓아 만들었다는 70m 높이의 기념탑(필자주–소위「주체탑」을 뜻하는 것 같음) 꼭대기에는 20m 크기의 대형 횃불이 항상 밝혀져 있었다. 인류에 알려진 가장 무가치한 이 기념물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발상해낸 것."

또 이런 대목이 있다.

"도로 한가운데는 5차선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위대한 수령」이 행차할 때만 쓰는 전용로이다."

이 짧은 기행발췌문을 나의 뇌리에서 쉽사리 치워버릴 수 없는 건 어째서일까?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무가치한 기념물이라고 지칭된 탑과 김일성의 전용도로를 위해 혹사되었을 북한주민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까?

지난 연말, 북한에서는 곳곳에서 대대적인「인민궐기대회」가 열리고 있었다.「마지막 돌격전투」라는 가슴이 섬뜩해지는 구호아래 일년의 고된 노동이 막 끝나려는 무렵이었다. 82년도 작업목표량을 10월10일로 앞당겨 완수하자는 궐기대회였다. 그럼으로써 70세 생일을 맞는「수령님」을 기쁘게 해주자는 것이다.

북한위정자는 연간 작업목표량의 조기달성을 통상 10월10일로 잡는다. 연간계획을 거의 3개월이나 앞당기는데 구실이라는 것이 고작 이날이 소위「노동당창건기념일」이라는 거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수령님」이 창건한 인류사상 가장 진보된 정당이란다. 워낙 뻔뻔스러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고 보면 무슨 짓인들, 무슨 소리인들 못할 것이 없다.

「만경봉」이란 배가 있다. 일본을 드나들며 말썽을 빚는 배다. 이 배의 선장 박영식은「수령님」교시로 설계 일주일, 착공 두달만에 진수( )시킨 북한조선 제1호라고 허풍을 떨다가 망신을 당했다. 실은 그보다 6년전 폴란드조선소에서 만든 2 개월걸려 고작 페인트칠만 다시 한 것이 탄로났던 것이다. 그처럼 뻔뻔스럽기에 외교예절을 지켜야 할 자리에 멀쩡 독사주(毒蛇酒)를 내놓아 참석자들을 당황케 하는 무례를 범하고도 끄떡도 않는다.

「무가치한 기념물탑」이나「전용도로」와 견줄만한 것은 수없이 많지만 평양의「지하철궁전」이란 것도 이와 비슷한 보기의 하나다.

지하 150m의 암석층에 턴넬을 뚫고 건설한 이 지하철은 세계 최상의 것이란다. 아름드리 대리석 기둥이며 웅장한 벽화, 화려한 샨데리아등은 유명한 모스크바의 지하철을 모든 면에서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다. 순전히 북한기술에 의해 북한자재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완공,「수령님」께 바쳤다는거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150m 지하 암석층을 낙후한 기술로 굴착해 나가는, 그것도 목표일정을 앞질러 나가야 하는 북한주민들의 모습은 어쩌면「피라밋」을 쌓아 올리던 옛노예를 연상케 한다. 바위를 쪼고, 암벽을 깨어 나가는 북한주민들의 노력 은「샛별보기운동」이다「천번허티굽히기운동」등「노작착출」을 위한 구호도 무색하다. 바위를 쪼고 암벽을 깨면서도 "우리는 행복해요."를 연발해야 했다. 그건 흑사를 지나 현대판 노예라고 할 수 있다. 노예는 차라리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육체만 혹사 당했지, 정신마저 가혹하게 채찍질 당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북한의 초등학교 국어책에는 김일성의 이름이 자그만치 744회나 나온다. 그 대목 대목을 모두 암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꿈을 꾸면서도「무조건적인 충성심」을 수령님께 바치라고 강요당한다. 북한에 산재(散在)해 있는 김일성의 동상은 노동당정도의 조직력을 빌리지 않는 한 불가능할 만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정도다. 멀쩡히 살아있는 인간의 동상에 북한주민들은 큰 절을 하고 우러러보아야하는 것이다. 차라리 노예는 행복했는지 모른다.

군사적 목적을 제외하면 우리네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소위 평양의 지하철궁전이다. 지하철이란 모름지기 대중의 교통편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궁전처럼 화려한 지하철은 결국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네들은 세계에서 제일 편리하다고 정평이 있는 파리의 지하철에는 눈을 가리고「공산계급귀족」을 위한 화려한 지하철궁전 만을 들먹이는 격이다. 그러기에 외국인을 초빙해서 특별열차를 마련, 구석구석을 구경시키며 선전효과를 노리는 한가로운 지하철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지난 지금쯤, 선량한 북한주민들은 목표량 초과달성을 위한「마지막 돌격전투」, 또는 이와 비슷한 몸서리쳐지는 구호 아래 연말까지 가혹하게 노동력 제공을 강요당할 것이다. 내년에도, 다음해에도, 그리고 또 다음해에도 연간작업목표량은 노동당 창건일로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면서「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무가치한 기념물탑」을 쌓아올리듯「인민의 복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와 유사한 작업을 벌일 것이다.

그러기에 알바니아의 악명 높은 독재자 호자조차도 김일성을「과대망상증환자」라고 비웃는 까닭이 거기 있는 것이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호남향우회 연말잔치

향우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는 세모의 계절 입니다.
향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괴로웠던 일 아쉬웠던 일들을 세월속에 묻어 버리는 망년의 기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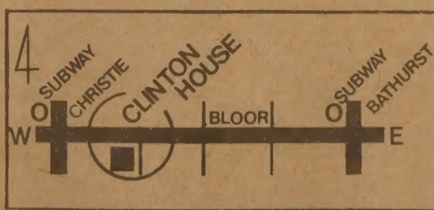
일시 : 1982년12월18일(토) 오후7시
장소 : Ukranian Center (2층) 297 College St.(at Spadina)
회비 : 1인당 25불
※특별출현 : 인기가수 송대관
밴드 권순근과 그악단
사회 : 박상선(다년간 무대활동)

—연락처—
651–8835(장영대)
773–5531(강기원)
271–0166(송남성)
255–4532(김병선)
677–1888(마보훈)
621–2059(송기선)

호남향우회 회장 장영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크링토 BLOOR 에서 만납시다!!
친한 친구와 다정한 연인과 함께…
각종 파티·회갑연
결혼피로연

□150명 수용의 메인홀
□ 50명 수용의 연회실
□ 50명 수용의 각델라운지
□간이 모텔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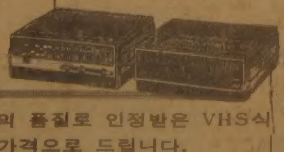
CLINTON HOUSE
693 BLOOR ST.W.
535·9541 대표·김영규

MAGNAVOX
BY PHI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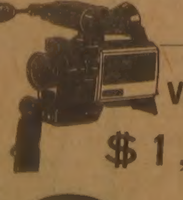
김씨는 $3,000이상 들여서 스테레오를 구입했는데 소리가 꽤 좋더군요.
이씨는 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스테레오를 장만 했다는데 소리가 기막히게 좋더군요.
이 두분의 차이점이 뭔줄 아십니까?
이씨는 그의 음향시설을 대일오디오비데오에서 구입했다는 점 입니다.

■저희 회사는 40여 유명제조회사의 지정 판매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전축, 테레비젼, 카 스테레오, 전화기, 테이프, 휴대용 Keyboard, 스튜디오용 녹음시설, 마이크등 수천가지의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취급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구매자의 요구에 적당한 물건을 추천해서 캐너디언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구해 드립니다

$1,399
VR8382 BK
PORTABLE VCR



●가볍고(3.6kg 충전밧데리 포함.)
●2주간 4가지 프로그램을 녹음장치 할수 있음.
●8시간까지 녹음 가능.
●고성능 원격조정 장치.
●슬로우모션과 화면고정 가능.



VR8269BK
$1,279
●옷불에서도 촬영가능.
●6:1 자동ZOOM 렌즈.
●고성능 자동 초점조정.
●원격조정 촬영.
●자막과 숫자를 집어 넣을수 있음.

정통한 CONSUMER'S REPORT 잡지·5월호에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은 VHS식 MAGNAVOX의 최고급 휴대용 비데오 머쉰과 카메라를 도매가격으로 드립니다.

대일오디오비데오
270—0679 (Before 5PM.) 279—3174 (After 5PM.) 임문호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 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협동조합 D데이 6월1일
집행부,7단계 추진계획 발표

협회의 숙원사업인 협동조합의 설립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10월 총회 이후 많은 회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협회집행부는 그 설립의 D데이를 6월1일로 예정하고 아래와 같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1단계(11월-12월)
◉기존 한인도매상과의 충분한 대화(공존, 통합, 인수)
◉담배 도매권 구입에 대한 연구
제2단계(12월-1월중순)
◉협동조합의 정관 수정 및 완성(공청회 개최)
제3단계(12월-1월)
◉조합설립에 대한 자본 지원책을 모색키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상
제4단계(1월-2월)
◉주식청약서 작성및 주식청약을 위한 홍보기간
제5단계(2월)
◉제1차 주식청약 접수(임원·이사) (2월-3월)
◉제2차 주식청약 접수(일반회원)
제6단계(1월-3월)
◉위치선정
◉제조및 도매업자들과의 협상및 제약
제7단계(6월1일)
◉영업개시

차선겸 회장은 "협동조합의 설립이 비록 3만 교민의 꿈이며, 800회원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협회의 집행부 임원이나 일부 이사님들의 노력만으로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버찬 과업이며, 이는 오직 800회원 전체가 하나 되어 협력하고 단결하여야만 가능하리라 확신한다."면서 "어떤 면에서 기존 두 한인 도매상이 없었다면 협회차원에서의 조합추진이 한결 용이하겠으나,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호간 최대한의 노력으로 양보하고 협상함으로써 평화로운 인수내지는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10월29일 개최된 집행부 회의에서는 임원전원이 조합설립의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으며, 이를 위해 최대한 시간적으로 헌신할 것을 상호 약속했다.

《바로 잡습니다》

11월11일자 한국일보 「실협뉴스」 기사의 제목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실협의 우수한 전통 이뤄지기를」을 「회원의 적극협력요망」으로
◆「협회후원, 회원의 적극협력요망」을 「년초에 시의회상정」으로
◆박찬도씨글 「시의회상정」을 「실협의 우수한 전통 이뤄지기를」로
◆「잡지특별수당」 다음에 「희망비회원, 12월20일까지 가입요망」을 삽입.

10주년 "실협의 밤"
내년 3월초, 2천명예상

년말이 가까와 오면서 많은 회원들이 협회년말파티가 언제인지 문의한다.

협회간부진들은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과대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82년도 년말파티는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그대신 83년도 창립 10주년을 기하여, 대규모 "실협의 밤"을 기획하고 있다.

1973년 7월, 30여명의 상점경영인들이 모여 「한인상인협회」로 발족한지 10년, 11월 현재 회원수 800명이 넘으며, 전회원의 꿈이며, 숙원사업인 「협동조합」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회원 가족과 일반교민 초청객을 합치면 2천명 이상의 인원이 예상되는 10주년 "실협의 밤"에는 각종 공급업자들로부터 들어올 3만불 상당의 경품과 함께 한국의 인기연예인 쇼, 댄싱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협회의 임원진들은 즐겁고 질서있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벌써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회원제위의 바쁜 년말스케줄을 고려하여 년말파티는 생략하고 내년 3월의 10주년 기념파티를 기대하기를 집행부는 바라고 있다.

◆"실협의 밤"파티에 모였던 인파

협회 신규회원 급증
지난한주에 24개업체

금년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협회의 신규가입회원은 년도말인 8월말까지 평균 3일에 2명씩 가입신청, 10월의 정기총회 이후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는 물론 각종업체가 속속 가입을 해와서 지난 주에는 무려 24개 업체가 가입했다. (하단광고 참조)

최근 갑자기 신규가입회원이 급증하게 된것은 협회의 회칙에 따른 각종 업체의 영업방침이 공포되고,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실업인협회라는 강력한 조직하에 각종 소매업체를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로 결정한데에 영향을 받았고, 또하나는 잡지류의 판매에 대한 10% 추가수당을 내년부터 출판업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게 된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차선겸회장은 "협회의 강력한 파우어 형성을 위하여 반가운 현상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1,000개 업체에 가까운 회원을 가진 대협회의 책임자로서 기쁨에 앞서 전체회원 각자의 실리추구를 위해서 임원들과 전력을 다해서 일해야겠다"고 책임의 무거움과 새로운 각오를 피력했다.

《 축하합니다 》

Dunhill의 light담배를 display함으로써 1주일에 한가게씩 경품을 추천하는 Rothmans회사의 Promotion에서 지난주에는 Yonge St.에서 Yonge Milk Store를 경영하는 회원 전운식씨가 당첨되어 $400 상당의 금멕기 「라이터」를 탔다고 한다.

실업인협회에 가입 하시려면?

1. 협회사무실(533-7923)에 전화해서
◆업체이름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성명을 알려주면
2. 즉석에서 회원번호를 드리고,
3. 가입신청서와 필요한 Information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4. 기입한 신청서를 회비(년 $50)와 함께 협회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곳 : O.K.B.A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 1k8

쿠폰청구를 의뢰 하시려면?

1. 처음 쿠폰청구를 하시는 분은 두 쿠폰청부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용지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2. 신청용지 청구방법
◆Herbert A. Watts Ltd.(Box 2140에 해당하는 Coupon)
전화번호 252-7741로 전화를 하시어 업체이름, 주소를 말씀하시면 직접 상점으로 보내줍니다.
◆Nielsen Clearing House(Box 3000에 해당하는 Coupon)
(1)협회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안내서와 Retailer Identification Form을 우송해 드립니다.
(2)받으신 I.D.Form을 기입하시고,
▲도매상에 order하여 물품구입하는 경우…최근에 구입하신 Invoice 한부를 Copy,
▲도매상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Potato Chips와 Drink류 구입하신 Invoice Copy 한부씩-2장을 안내서에 기입된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Neilsen Clearing House
P.O. Box 639
661 Millidge Ave,
St.John, N.B.
E2L 4A5
(3)두회사로부터 보내온 신청용지와 Coupon을 함께 협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처리하여 드립니다.
※그후부터는 수표와 함께 오게되는 신청용지를 잘 보관하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처분하고 싶은 비품이나 비품을 사고 싶으십니까?

1. 협회사무실(533-7923)에 전화로 ▲품명 ▲규격 ▲수량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2. 실협뉴스의 「K.B.A.교환센타」에 즉시 게재하여,
3. 손쉽게 사고 팔수 있읍니다.

법률문제로 궁금한 점은?

1. 협회법률상담실(533-7923)에 전화해서 시간약속을 하세요.
2.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30분사이에 협회 추천 변호사인 Mr. Levine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통역도 해드립니다.

〈법률상담〉

유 서

(Ralph M. Levine 강공선역)

●유서의 효력은 어떻게 상실되는가?

유서의 효력상실에는 (1)혼인, (2)유서의 파기, (3)새유서의 작성의 3가지가 있다.

◉혼인으로 인한 효력상실

유언자가 결혼하면 유서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것은 유서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유언자는 대개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겨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법적인 해석인 까닭이다. 이경우에 법률은 유언자를 위한 새로운 유서작성을 안하고 단순히 혼인이전의 유서를 무효화시켜 버리기만 한다. 따라서 유언자는 유서없이 사망한 것이 되며 재산은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혼인으로 인한 유서의 효력상실에 예외가 있다. 그것은 혼인이전에 작성된 유서일지라도 그 유서안에 어느 특정인과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전문적인 문구사용을 요하므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개정상속법에 의하면 유언자가 유서를 작성한후 이혼을 했을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유증 또는 그 배우자를 유언집행자로 임명한 것은 무효가 되고, 그 유서는 그 배우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과 똑같이 집행된다.

자동적인 효력상실은 「혼인」이 (a)이혼의 최종확정 판결로써 종식되었을 경우와 (b)법정이 혼인의 무효(nullity)를 선언했을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별거중이거나 「이혼가판결」(decree nisi)을 받았거나 혹은 인연을 끊을(cut out)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위에 명시한 두가지 사정이 아니면 법은 유증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파기로 인한 효력상실

유서의 효력을 없애기 위하여 유서를 파기하거나 찢어버리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유서의 파기는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는 없고, 유서법에서는 파기행위를 「무효화시킬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간주한다.

다음에 유서를 파기하려면 원본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변호사는 보통 유서를 두통 작성하는데 그중의 하나만이 「원본」(Original)이고, 또 하나는 「진사본」(true copy)이라고 한다. 유서를 파기하려면 반드시 원본을 파기해야지 진사본을 파기하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원본은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금고 깊숙이 보관해둔다.

◉새유서 집행으로 인한 효력상실

언제나 나중 만든 유서가 유효하고 과거의 것은 전부 무효가 된다. 흔히 유서에는 「본인은 본유서이전에 본인이 작성한 모든 유서와 보족서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쓴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유서는 무효이다 하는것을 명시하는 것이 된다. 만약 이문구가 유서에 없으면 과거의 유서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새로운 유서를 작성함으로써 과거의 유서는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상 최근에 작성된 유서가 유효하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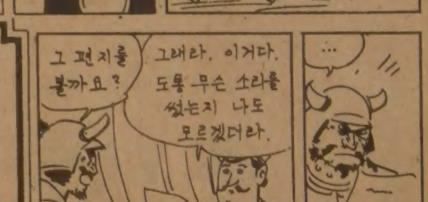
새유서를 작성하면 그이전의 유서는 파기해 버리도록 권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유서상에 「무효」(superseded 또는 revoked)라고 가로질러서 써놓기 바란다.

과거의 유서상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채 두개의 유서가 있으면 먼저것만 꺼내게 될수도 있고, 또한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나 부정직한 상속인이 나중것은 없애버리고 먼저것을 내놓는 사례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600 SHERBOURNE ST. #402
(B) 968-1543 (R) 363-9196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김명숙 회계사무소
이전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아오니 회원 여러분의 세무및 회계업무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주소 : 627 Bloor St. W. Suite 302(실협 윗층)
ㅁ전화 : 534-3760(B) 669-2710(R)
ㅁ경력및 학력
74년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Algoma University 회계학 전공
5년간 C.A. Firm 근무
현 C.G.A. 5th Level(Finialist)

Welcome to K.B.A.

금주의 신입회원

Islington Variety	민경량	Academy T.V. & Stereo	전광재
Champagne Collision	이광한	M.G.A. Food Market	서민석
Keg Variety	김남우	Raymond Smoke & Gift	이정일
National Grocery & Variety	김태영	Dominion Donut	전문식
Cartwright Distributing Co.	황정일	Ham's Variety Smoke & Gift	함태산
Star Beauty Salon	김창업	Bert's Variety	장성순
Clouseous Cafeteria	김선영	Canada Permanent Trust Co.	김 평
Lucas Cafeteria	이윤현	Sharkey's Tobacco Emporium	최영식
Glen Agar Smoke	최한칠	Prettyman Smoke Shop	정승은
Smile's Convenience Deli	박원용	Tarent Variety & Gift	김영삼
Charlies Gift	김상옥	Open Door Variety	김문혁
Miracle Maintenance Corp., Ltd.	배형도	U.T. Smoke Shop & Variety	오태석

실협 지정

The professional pest controllers.

pco

Call PCO, to solve your pest problems.

Call : 699-9373
1472 Kingston Road,
Scarborough, Ontario M1N 1R6

PCO Services Ltd. Since 1952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蘇 書記長에 안드로포프

당분간 集團指導制로

체르넨코 幹部회의 議長 有力

"경제·國防강화 「브」政策 계속" 수락演說

◇「브」에 弔意표하는 새權力者들 지난10일 사망한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에게 조의를 표하고있는 소련정치국원들。左로부터 빅토르·그리신, 유리·안드로포프, 니콜라이·티호노프, 콘스탄틴·체르넨코, 드미트리·우스티노프。【모스크바AP=聯合】

【모스크바=聯】 前KGB(소련비밀경찰) 총수 유리·V·안드로포프가 12일 열린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긴급전체회의에서 브레즈네프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만장일치로 임명됐다고 이날 소련관영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소련방·권력기구중에서 가장 강력한 직책이며 안드로포프가 이 직책에 임명됨으로써 그는 브레즈네프의 후계자가 됐다.

68세의 안드로포프는 지난 5월 물러날때까지 15년간 KGB 의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여름에 들어서는 가장 유력한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로 물망에 올랐었다. 안드로포프는 공산당중앙위원회 서기로 임명된후 KGB의장직에서 물러났었다.

안드로포프는 이날 당서기장 직책에 대한 수락연설을 통해 『소련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소련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레오니드·브레즈네프에 의해 수행돼온 레닌주의적 국내외정책들을 계속추진할것』을 다짐했다』고 타스통신은 보도했다.

소련비밀경찰총수가 최고權座에 앉게된것은 이번 안드로포프 경우가 처음이다.

한편 안드로포프의 당서기장 임명이 발표되기전 당중앙위 全政治局員은 브레즈네프의 棺앞에 도열, 조의를 표했는데 이때 도열순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리·로마노프, 外相 안드레이·A·그로미코, 빅토르·V·그리신, 유리·V·안드로포프, 니콜라이·A·티호노프, 콘스탄틴·U·체르넨코, 국방상 드미트리·F·우스티노프, 딘무하메드·쿠나예프, 미하일·S·고르바체프의 순이었으며 아르비드·아·펠셰는 보이지않았다.

이날 열린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안드로포프의 가장 강력한 政敵 콘스탄틴·체르넨코가 안드로포프를 당서기장에 추대했다.

한편 소식통들은 브레즈네프의 당최고간부회의 의장직을 체르넨코가 맡게될것 같다고 추측, 당분간 집단지도체제로 유지될것으로 전망했다.

◇신임蘇聯공산당서기장으로 12일 전격선임된 유리·안드로포프。【모스크바13日UPI=聯合】

東西 弔問外交 펼칠듯

브葬禮式계기 부시등 首腦級 대거참석

【런던頭=聯】 15일 모스크바에서 거행될 蘇聯邦최고회의 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장례식은 여태까지 지속되어온 東西兩진영간의 긴장증대에 뒤이어 쌍방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접촉을 가질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줄지도 모른다.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조지·부시미국부통령이 브레즈네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西方조문사절들의 명단의 선두를 장식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부시부통령은 美·蘇양국관계의 악화로 특징지어진 시기인 레이건행정부출범 2년만에 소련지도층과 만나는 최고위 미국관리가 될것이다.

브레즈네프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른 西方國지도자들중에는 프랑스의 피에르·모루와수상과 클로드·셰송 외상이 포함되어있다. 모루와수상의 이번 모스크바방문은 미테랑행정부 고위관리로서는 첫번째 방문이된다.

영국외무성은 프란시스·핌 외상이 영국정부를 대표하여 조문사절로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독에서는 한스·디트리히·겐셔외상이 헬무트·콜수상의 새 보수정부를 대표하여 모스크바로 갈 예정이다.

브레즈네프장례식을 계기로 현재 모스크바에서 정치회담을 열 계획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西方의 정치분석가들은 정치지도자들의 장례식과같은 중요한 행사들이 과거에 東西양진영간의 비공식접촉을 위한 훌륭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브레즈네프 장례식은 西方지도자들에게 새로운 蘇聯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와 대면, 그를 평가할기회를 제공해 줄것이다.

레이건美대통령은 11일 美國이 새로운 소련 지도층이 이끌어가게될 소련과 양국관계 개선을 계속 추구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샤바동맹국들과 비동맹운동의 지도자들도 브레즈네프장례식에 참석할것이다. 이들중에는 구스타프·후사크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와 인디라·간디 인도수상,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등이 포함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스즈끼·젠꼬(鈴木善幸)수상과 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외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對蘇관계에 부여하고있는 중요성을 잘보여주고있는 것이라고 일본관리들은 말했다.

한편 유엔관리들은 모스크바에서 브레즈네프장례식을 계기로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이 안드로포프와 外相 안드레이·그로미코등 소련지도자들과 만나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마의 정치소식통들은 엔리코·베를링게르 이탈리아공산당 서기장의 브레즈네프 장례식참석결정이 이탈리아공산당과 소련공산당 화해의 시도를 뜻하는지 모른다고말했다.

中共 외상黃華파견

【北京頭=聯】 中共은 15일 모스크바에서 거행되는 레오니드·브레즈네프 前蘇聯공산당서기장의 장례식에 외상인 黃華를 파견할 것이라고 中共외교부가 13일 발표했다.

黨中央委위원인 黃華는 지난66~76년의 文化革命이후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최고위 中共관리이다.

法人稅率 8% 上向추진

民正, 財務委심의때

非公開기업 33%로

民正黨은 오는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財務委의 稅法심의 小委활동을 통해 법인세를 정부案보다 8%정도 上向조정할 방침이다.

民正黨이 마련하고있는 稅法수정안은 법인세에있어 非공개大기업의 경우 정부안인 25%를 33%로, 年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개·비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안의22%를 30%로 각각上向조정하고 5천만원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안20%를 그대로 유지토록했다.

民正黨은 또 非공개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1백억원이상에서 50억원으로 낮춰 非공개大기업의 범위를 대폭확대할 방침이다.

陳懿鍾정책위의장은 13일 상오 소득세법등 개정문제와 관련,『稅收가 감소되지않는 범위내에서 野黨측과 협의, 稅率등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實名制실시연기와 관계없이 정부原案대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3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在日平統諮問위원 金桂善씨 5백만원

서울시 茶房同業組合 일동 2백88만원

三淸閣 朴榮燦대표外 2백48만원

信興實業專門大 교직원·학생 1백40만원

부성여객(株) 김성회대표外 1백21만원

서울港運勞組 李成根위원장外 1백만원

韓國文化協會 34만원

大韓佛敎靑年會 25만원

西伯林KWU직장인 24만원

화남실업 박원규대표外 20만원

新城產業 張潤燮대표外 10만원

◇金桂善씨

▲日本 神奈縣 平統諮問委員 金桂善씨=5백만원 ▲社團法人 서울시 茶房同業組合 (조합장 전규자) 조합원一同=2백80만3천5백원 同組合직원一同=8만4천1백80원 ▲三淸閣 代表 朴榮燦씨外 任職員一同=2백48만7천5백원 ▲信興實業專門大學 교직원및 학생一同=1백40만원 ▲서울港運勞動組合 委員長 李成根씨外 組合員一同=1백만8천5백원 ▲부성여객(株) 대표이사 김성회씨외 직원一同=1백21만7천원【仁川지사접수】 ▲財團法人 韓國文化協會 이사장 李秀洪씨外 任職員一同=34만3천4백20원 ▲大韓佛敎靑年會=25만원 ▲在西伯林 K·W·U 직장인一同=24만7천5백87원 ▲仁川市東區松峴洞2의69화남실업(株) 대표이사박원규씨외직원一同=20만원【仁川지사접수】 ▲新城産業社대표 張潤燮씨外직원一同=10만원 ▲金浦郡黔丹面당곡3리 申最均씨外주민一同=3만1천9백원 ▲城東區金湖3街15통장외 주민一同=3만원 ▲金浦郡黔丹面대곡리황곡부녀회 박정숙씨외회원一同=1만원【黔丹지국접수】 ▲鍾路區누상동17통6반주민一同=1만8천원 ▲九老區개봉1洞24통8반 주민一同=1만5천원 【〃】

釜山·서울「千里길大長征」골인

◇大驛傳 피날레。京畿의 최종주자 李洪植이 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 골인하고있다。한국일보 헬리콥터가 축하비행을 하고있다。京畿는 25시간06분51초로 우승을 차지했다。【대역전취재반】

外務委 週內소집

국민、要請하기로

국민黨은 13일상오 총무단회의·외무·국방위원연석회의를 열고 한국군 레바논파견문제와 관련한 黨의 대책을 논의, 派兵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의의를 타진하기 위해 금주중 外務委소집을 요청키로했다.

李東鎭총무는 『이날중 他黨총무들과 접촉, 外務委 소집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國防委나 外務·國防委연석회의 소집은 派兵이 확정되거나 구체화된후 고려해야할 문제』라면서 國防委의 조기소집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政治자금 10億모금

經濟단체 접촉시작 中央選管委

중앙선관위는 약 10억원정도의 정치자금을 募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全經聯·商議·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접촉에 들어갔다.

金重瑞위원장은 12일 하오 申秉鉉무역협회회장, 柳琦諄중소기업중앙회장등을 만나 기탁금모금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금명간 鄭壽昌商議회장과도 만날예정이다.

社會漫評

「조문」객 「탐색」객…

地平線

나무 한그루가 한국 마라톤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베를린의 감격을 심어 46년, 그 키가 15m로 자랐다. 양정고교 마당에 있는 이 나무는 곧 서울시 지방기념물로 지정될것이다. 그리스에서 열렸던 고대올림픽 승자에겐 월계수가지로 엮은 월계관이 씌워졌다. 이 「榮冠」의 전통이 근대올림픽에도 계승되었다. 손기정선수가 부상으로 받아왔던 나무가 월계수로 알아왔는데 참나무의 일종으로 밝혀진것은 「意外」다.▼월계수가 아닌바에는 이나무 이름을 따로붙여본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든 그 담긴 뜻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나라잃은 울분을 마라톤으로라도 풀었던 민족의 의지는 이 나무와 함께 성장했다. 옮겨 심은 사람은 당시 博物교사였던 독립투사 金敎臣선생이었다. 겨레의 영광을 크게 길러 보자는 뜻이 서려 있을 것이다. 지방기념물로 지정할때 「마라톤나무」로 命名했으면 싶다. 그러면 갈수록 부진한 우리 마라톤을 격려하는 채찍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앞선다.▼釜山-서울 1천여리 길을 달리는 京釜大驛傳이 올해로 28회를 맞았다. 마라톤 전통을 지켜 가자는 비장한 결의로 한국일보社는 창간 다음해부터 大驛傳경주를 시작했다. 9·28수복기념과 멀리 신의주까지 내달리자는 통일의 의지도 여기 담겼다. 해마다 大驛傳街道를 뒤덮는 국민의 성원은 대단하다. 우리 마라톤을 힘차게 밀어주는 자극제다. 신진 유망선수가 많이 나왔고 신기록도 계속 세워졌다. 마라톤나무가 무럭 자라났듯 새로운 마라토너의 발굴·육성을위한 施肥가 곧 大驛傳의 취지다.▼우리 마라톤의 오랜꿈은 올림픽제패라 하겠다. 보스턴대회 두차례우승, 東京아시안게임 1위의 기억이 까마득하다. 태극기를달고 출전한 올림픽에선 4위 두차례의 실적이다. 「마라톤한국의 꿈」은 반드시 재현되어야한다. 그날이 온다면 삼각산도 덩실덩실춤을 추리라 생각한다.▼京釜 千里의 질주가 어제 서울에 골인했다. 선수들의 무서운 각축이 장하고 자랑스럽다. 이大驛傳이 더욱 활기를 띠어야 우리 마라톤은 살아난다. 신의주까지 달릴날도 빨리와야하고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마라톤 1위 골인도 우리가 차지할수있기를 바란다. 감격과 영광의 그날까지 뛰고 또 달리자.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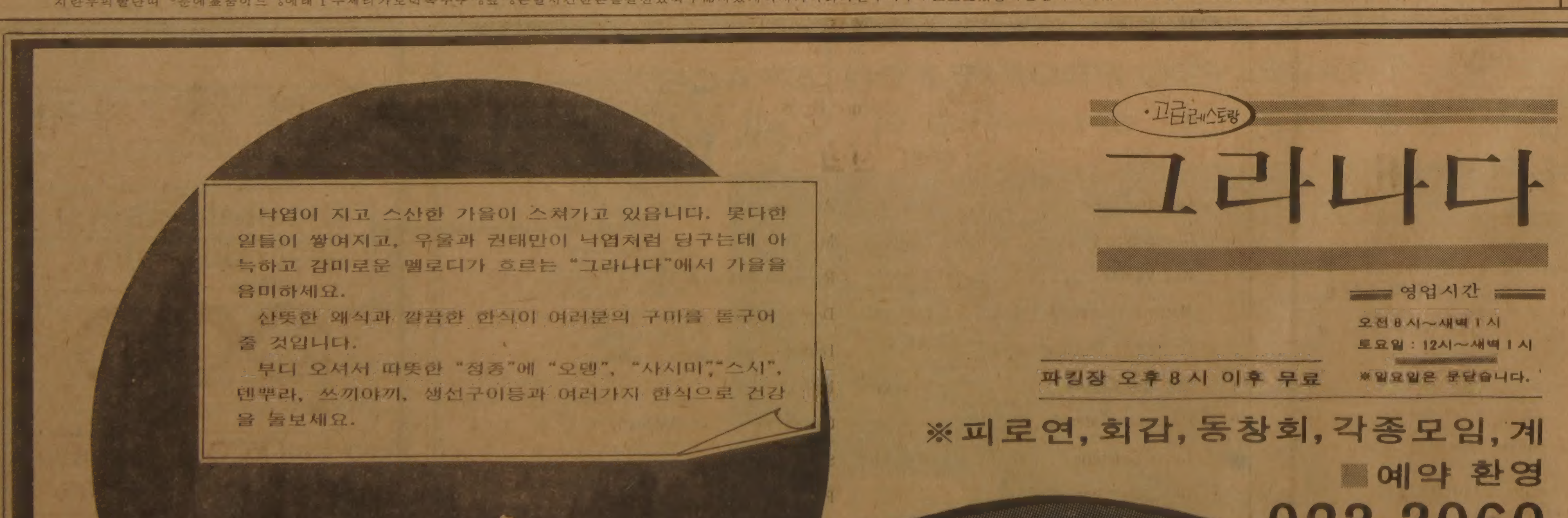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거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微笑·強硬」속 和解무드 기대

—안드로포프體制에의 西方측 視覺

워싱턴 「變數」에 所信껏대응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브레즈네프사망에 대한 소식을알리면서 TV들은 안드로포프를 거의 동시에후계자 물망에 올려놓았고 12일 모스크바로부터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의의외라는 느낌을 받는것같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앞으로잘 협조해나갈수 있을 것이라는 외교적인 코멘트를했지만 행정부나 전문가의 한결같은 평은 그가 소련의 현지도부내에서 드물게 보는 외교정책통이라는 것이었다.

관계자들은 체르넨코가 브레즈네프 측근중의 측근인 행정관료출신이라면 안드로포프는 15년간 브레즈네프밑에서 KGB의 책임자로 있었긴했으나 친숙도에서는 체르넨코에 따르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이것이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의 추종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는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근거가되고 있지만 현지도부의 어느누구보다도 권력이양및 구축기간을 단축할수있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왜냐하면 소련의 최고지도자는 항상 軍과 KGB 외교전문직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하는데 안드로포프는 KGB와 軍의 적극지지를 받고있을뿐 아니라 1956년에는 헝가리대사를했을만큼 외교에 정통해 이런기간을 줄일수있을것이라는 분석이다.

체르넨코가 국내문제에 정통한 것에비해 안드로포프는 외교 군사통이고 주변에서 그를 知的이고 실용주의적이라고 평하고 있다는 점을들어 워싱턴의관측통들은 그가 누구보다 「변화」라는 문제에 융통성있게 대응할수있는 인물로 보고있다.

또한 안드로포프는「브」의 장례식을통해 각국지도자들과 만나는자리에서 아프간에서 폴란드 東西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것으로 보이며 그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강을 엿볼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재대사를 했으면서 미국인들은 서방세계를 한번도 여행한적이없고 KGB라는 비밀업무에 오래 종사했기때문에 미국에대한 그의생각이 어떤것인지를 가름할수없으며 또 가름하다는것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신문들은 그의외교분야의 탁월성과 핸섬하고 누구보다 옷을단정하게 입는 것까지를 통틀어 그는 단호하면서도 유연할수 있는 인물로보고있다.

東京 外交엔 制約받을듯

【東京=宋孝彬특파원】 일본고위관리들은 안드로포프가 당서기장에 선출되는 것과 동시에 브레즈네프노선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같이 소련의 對外정책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외무성은 안드로포프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서 과도적 성격을 띠고있기때문에 자신의 개인적구상을 소련의 국내외정책에 크게 반영시킨는데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관리들은 안드로포프는 풍부한 외교경력과오랜 KGB (소련비밀경찰)의장직을 통해 서방측을속속들이 아는 인물이기때문에 對서방정책에 있어 모험주의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은 안드로포프의 등장이 日蘇관계가 보다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같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례적으로 스즈끼(鈴木)수상이 직접 사꾸라우찌 (櫻內)외상등 최고위급조문사절단을 이끌고 브레즈네프장례식에 참석하기로결정했으며 이러한 일본측의 성의표시는 對蘇관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안드로포프체제가 어떻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있다.

안드로포프체제가 앞으로 수년후에 로마노프 코르바쵸프등 50대 정치국원로 우수선된 신진세력이정권을 계승할때까지 과도적체제일지도 모른다는 점에 유의, 이들 신진세력과 현지도체제사의 권력구조이동향을 지켜보아야할 것이라고 일본내 소련문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新안드로포프 지도체제는 계속적으로 중공과의 화해를 모색하려고 노력할것이며 이러한 중공화해무드를 對美정책에 있어서 강경한입장을 취하는데 이용하려 들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안드로포프가 개인적으로 東西데탕트를 지지해 왔던점을 들어 美蘇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파리 波사태등 好轉 예상

【파리=安炳璨특파원】 유리·안드로포프가 黨서기장에 선출되어 브레즈네프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느의미에서는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브레즈네프 死後 소련이 당면한 對內외적문제를 무리없이 해결해나갈만한 인물로 안드로포프밖에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후계자가 될것이라는 추측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었다.

브레즈네프 사망기사중에도 후계자는 안드로포프가 가장 유력한것으로 모두들 전망했었다.

그러나 안드로포프의 후계자승계가 브레즈네프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전에 이뤄졌다는데에는 모두들 놀라고 있는것같다.

1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22일로 연기된것으로 일단 알려졌던 후계자선출이 특별한 이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기때문이다.

관심은 안드로포프의 黨서기장 임명이 안드로포프가 권력을 독점하는 1人지배체제를 예고하는가, 아니면 뒤에 임명될 국가원수자리인 연방최고회의의장및 수상등과 함께 권력을 共有하는 집단지도체제인가 하는점에 모아지고있다.

안드로포프의 정책이 브레즈네프가 취해왔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않을것이라는데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것같다.

안드로포프는 56년 헝가리민중 봉기때 헝가리주재 소련대사를 지낸적이 있고 東歐의 거의 모든나라를방문한적이 있는 東歐通이라는 점에서 유럽을 매우 잘 아는 인물로 알려졌다.

안드로포프 등장으로 소련과 西歐와의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폴란드사태가 好轉되는 방향으로 나가지않을까하는 희망적 견해도 나오고있다.

폴란드 정부가 안드로포프의 후계자승계와 거의때를맞춰 연금중이던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를 석방한것을 吉兆로 해석하기도한다.

안드로포프가 우선 해결해야할문제가 소련의 경제난이니만큼 소련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위해 西歐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들지 않을까하는 전망도 있다.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15>

사다트

名譽·友情존중하는 靜的 인물

蘇聯勢추방·예루살렘訪問등 혼자결정

◇사석과연설을 즐겼던 두뇌형의 지도자 안와르·사다트。이집트국민들은 사다트를 사랑하기보다는 존경했다。

이집트의 風雲兒 낫세르가 심장마비로 急逝하고 사다트가 그의 뒤를 이었을때 사다트가 오랫동안 권좌를 유지하리라고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많은 관측통들은 사다트가 기껏해야 수주일동안만 대통령직을 맡을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은 그 이유로 사다트에겐 낫세르와같은 카리스마가 없음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다트가 낫세르와는 전혀 다른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있었다. 그리고 한 정치가가 지도자가 되었을때야 비로소 그가지닌 참된능력을 알수있다는 사실역시 간과하고 있었다.

사다트는 낫세르가 벗어놓고간신발을 그대로 신으려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발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고자 했다. 사다트는 능숙하게 자신의 권좌를 넘보는자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정적들을 감옥에 보내버렸다. 낫세르가 죽은지 얼마되지않아 사다트의 권좌는 요지부동의 반석위에 올랐다.

사다트는 이때를 위해 낫세르 그늘밑에서 20년동안을 와신상담해왔다. 사다트는 개인적인 권력야욕이 없는것처럼 처신함으로써 낫세르의 무자비한 정적탄압에서 살아남을수 있었다. 권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집착심이 강했던 낫세르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탄압해 버렸다.

그는 낫세르의 지시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않고 고분고분해왔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낫세르의강아지」라고 부를정도였다.

사다트는 낫세르가 권력에 대해 집착심이 많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었다. 사다트는 낫세르밑에서 18년동안 그저 보고 듣기만했다. 그는 인내심이 갖는 미덕을 영국식민지통치아래서 체험한 감옥생활속에서 이미 깨닫고 있었다.

사다트는 명예를 존중하고 우정과 신의를 지킬줄아는 섬세한인간으로 통했다. 사다트는 개인적성격이나 통치방법에서 낫세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낫세르가 끊임없이 움직여야만하는 動的인간이었다면 사다트는 필요할때만 움직이고 사색을 좋아하는 靜的인간이었다.

낫세르는 정부의 사소한결정에까지 참견했으며 새벽까지 집무실에서 일하곤했다. 그러나 사다트는 아침늦게 일어나 집무를 시작했고 별로 많은시간을 정부에 할애하지 않았다.

사다트는 중요한문제에대해서 혼자 결정하기를 좋아했다. 해당각료들마저 무시하고 혼자서 결정을 내려버린 경우도 종종있었다. 점심을 먹은뒤 혼로 나일강변을 산책하며 정책을 구상하고 단안을 내리곤했다.

이러한 사다트의 성격때문에 정부의 사소한 일상업무는 더디고 비능률적이 되긴했지만 사다트가 혼자서 결정한 중대정책들은 주위사람들을 깜짝놀라게한 경우가많았고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었다. 소련인들을 이집트에서 추방한것이라든지 77년의 예루살렘방문결정등이 좋은 예이다. 이결정은 중동정치기상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들이었고 사다트는 이결정을 혼자서했다.

낫세르가 권력지향했던것 만큼이나 사다트는 명예지향적이었고 낫세르가 충동적인것 만큼이나 사다트는 사려가 깊었다. 사다트가 무슨일에 착수했다는것은 바로그일의 완성을 의미했다. 사다트는 일을 시작할때 그일이 가져올 모든과정과 결과를 폭넓게 조망하고서 일에 착수하기때문에 거의 실수가 없었다.

사다트는 낫세르가 남긴 유산중 하나인 이집트의 경제적고립을 우선 시정하고자 했다. 그러자면 이집트가 소련에 매달리도록 채워졌던「낫세르의 족쇄」를 깨버리는게 급선무였다.

낫세르는 자존심이 세고 독립성이 강한 인물이었다. 이집트가 소련과의 유착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는 사실은 낫세르에게 힘든 부담을 안겨주었다. 사다트는 이부담이 낫세르에게 정신적고통을 가져왔고 결국은 그의 건강을 해쳤다고 생각했다.

사다트는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여러신호를 보내왔다. 이러한 신호중 가장극적인것은 72년 1만6천명의 소련군사고문단을 이집트에서 추방한것이었다. 소련인은 믿을수없다는 판단과 사다트가 원래 소련인을 좋아하지않는다는 개인적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

74년 카이로에서 사다트를 만났을때 내가『中·蘇분쟁의원인중 하나가 중국인이 소련인에 대해 갖는 문화적우월감이다』라고 말하자 사다트는『이는 바로 이집트에도 해당된다. 이집트인은 소련인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국민이다』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사다트는 낫세르가 야심적으로추진했던 외교정책이 이집트국내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않았다는걸 간파하고 있었다.

어느의미에서보면 낫세르의 외교정책에는 이집트국민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숨어있었다. 사다트는 이집트의 경제향상에 착수했고 성공했다.

사다트는 汎아랍국가의 건설보다는 이집트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만 한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다. 사다트는 낫세르가 완전실패한 국민복지부문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스라엘과의 평화로 이스라엘과 새로운 교역을 텄고 수에즈운하의 재개통은 많은 수입을 이집트에 안겨주었다.

낫세르가 감정적 지도자라면 사다트는 두뇌형지도자였다. 낫세르는 국민들의마음을 휘어 잡았고 사다트는 국민들의 두뇌를 움직였왔다. 국민들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는 사다트의 개성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사랑하기보다는 존경했다.

사다트는 나일강계곡의 가난한 농부의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立志傳的인물이다. 사다트는 평생동안 자신의 출생배경을잊지않았다.

사다트는 이집트국민들에 대해 심오한 철학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드골이 프랑스국민에 대해 가졌던것과 같은 국민에 대한 밀착된 인간적감정은 갖고 있지 않았다.

이집트 국민은 사다트에대해 감사해야할게 너무나 많다. 사다트가 죽었을때 이집트병사들은 한명도 전선에 서있지 않았고 이집트경제는 역사이래 최대의 풍요를 구가하고 있었다. 검열은 대폭 완화되었고 시민자유는 신장되었으며 비밀경찰의 활동도 훨씬 줄어들었다.

◇81년 8월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카터前대통령으로부터 평화의 월계관을 선물받고있는 사다트。그는 역사적인 예루살렘방문과 캠프·데이비드협정체결로 중동평화의 초석을 다졌다。

經濟·복지주력 脫낫세르 성공

내가 사다트를 마지막으로 만난것은 그가 죽기 2개월전인 81년8월이었다. 사다트는 미국을 공식방문했을때 나를 뉴욕에 있는 이집트영사관으로 초청했다.

그의 검은얼굴과 눈에 띄게 야윈 모습에 무척 놀랐다. 그의 행동가짐은 여전히 정중했다. 사다트는 두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몸조리를 하고 있던중이었다.

나는 사다트가 자신의 육체적 에너지를 오로지 정신노동에만 전량투입하고 있다는걸 직감할수 있었다. 그는 꼭 필요한 말만했고 대화도중 제스처를 거의 쓰지 않았다.

사다트는 레이건의 중동정책에 대해 매우 낙관하고 있었다. 내가 이스라엘 베긴수상의 행동이 무책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자 사다트는『그렇고 말고요. 베긴은 미치광이요. 마치 여우와 같아요』라고 베긴을 몰아 붙였다. 그는 이어『베긴은 매우 강인한 사람이죠. 그는 다른 사람이 결코 타결해낼수 없는 협상을 성공시킬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협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나는 베긴과 레이건대통령과 그리고 나 이 세사람이서 카터행정부때보다 더 훌륭하고 영구적인 평화를향한 진보를 이룩해낼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사다트는 나에게 아스완에 있는 자신의 겨울 별장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그때 두사람이서 격의없는 긴대화를 나누자고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약속을 지킬수 없게됐다. 사다트가 그해10월 암살을 당해 不歸의 客이 됐기때문이다.

나는 카터및 포드前대통령과함께 특별조문사절로 사다트장례식에 참석,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韓·日친선協일행 本社에 獨立誠金

◇永治단장(左)이 성금을 본사 曺和欽편집국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의 모범 새마을등을 시찰하기 위해 한국에온 日本岐阜縣 多治見·笠原지구 韓日親善協會 일행 20명(團長 永治良郎)이 13일 본사를방문, 독립성금 기금으로 일화 20만円을 기탁했다.

蘇軍事力증강 계속

베시美合參議長

【워싱턴AP聯=聯】 존·베시 美합참의장은 새로운 소련지도자 유리·안드로포프(68)가 군사력증강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베시장군은 기자들에게 이날 신임 소련공산당서기장으로 선출된 안드로포프가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군부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군사력을계속 증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시장군은 안드로포프지도하의 소련정책방향에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않는다고 말해 다른 美정부관리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司令部 폭발사건 死亡 2百명 넘을듯

【티레·텔아비브·다마스커스AP聯=聯】 레바논南部港都 티레市주둔 이스라엘軍사령부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폭발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2일 이스라엘軍 47명을 포함, 1백명으로 늘어났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폭발사고로 무너진 8층 건물의 잔해속에 묻혀있는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총사망자수는 레바논人및 팔레스타인人들을 포함, 2백명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스라엘軍소식통들은 이날 47具의 이스라엘軍시체를 발굴했으며 실종된 다른60명의 이스라엘軍人중 생존자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이와동시에 이날 다마스커스의 한 팔레스타인 과격지도자는 이번 폭발사건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좌익군대에의해 시도된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간의 美國방문을 위해 11일 뉴욕의 케네디국제공항에 도착한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이번사건이 『인류의 敵들에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와함께 아리엘·샤론국방상은 이날 메이어·조레아소장을 단장으로하는 조사반을편성, 앞으로 일주일안으로 조사작업을 마무리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死亡說 키릴렌코 「브」靈前에 弔意

【모스크바=AP聯】 지난주소련 볼셰비키혁명65주년 기념식장의 정치국원석에서 모습을 보이지않아 여러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안드레이·키릴렌코(76)가 12일 故브레즈네프에게 마지막 조의를 표하기위해 모습을 나타냈다고 목격자들이 11일 말했다.

소련소식통들은 키릴렌코가 브레즈네프의 유해가안치된 노동조합본부건물에서 정치국원들이 줄지어 브레즈네프의 관옆에서 마지막 경의를 표할때 따로 떨어져 서있었다고 말해 그가 이미 정치국원직을 상실했음을 시사했다.

소련소식통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것으로 알려진 키릴렌코가 브레즈네프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人事異動

▲서울信託銀行 杏堂洞簡易預金取扱所開設準備委員長 李廷權 (13日字)

안테나

蘇人3명 旅客機납치 터키着투항 亡命요청

東獨系 소련인 3명이 7일 소련국내선여객기 1대를 터키로 공중납치한뒤 터키경찰에 투항,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터키반관영 아나돌리안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소련시민권을 가진 東獨태생의 무장괴한 3명이 黑海연안의 소련 북부도시들인 노브로시스크—오데사간을 비행중이던 소련국영 아에로플로트항공사소속 안토노프24機를 공중납치, 機首를 黑海연안의 터키도시 시노프로 돌리게했다고 전했다. 【앙카라=UPI】

英플루토늄10kg 紛失 核폭탄製造 충분한量

영국의 셀라필드 核연료재생공장단지에서 생산된 10kg이상의 플루토늄이 분실됐다고 런던의 더·타임즈紙가 6일 보도했다.

그런데 분실된 10kg의 플루토늄은 核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다. 이같은 사실은 5개의 核발전소와 3개의 영국 核연료생산공장에 있는 우라늄및 플루토늄의 재고량기록이 실제양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82년도 미결核물질」이라는 題下의 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런던=AP】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533-2361

記者의 눈

54시간의 迷路

브레즈네프의 유해는 모스크바의 노조회관에 누워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할수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 사실말고 풀려야할 의문은 꼬리를 문다. 브레즈네프가 죽었다는 공식발표가 있은지 8시간뒤에 나온 의료공보는 그의 死因을 심장마비라고 밝혔을뿐, 그가 어디서 숨을 거두었는지는 언급이 없었다. 의료공보에는 주치의를 포함, 의사 8명의 서명이 줄줄이 붙어 있었다.

레닌훈장을 스스로 자기 가슴에 꿰어찼던 「사회주의 영웅」을 누가 임종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미망인 빅토리아와 딸갈리아의 모습은 유해앞에서나 목격되었다. 그러나 무역성 제1차관으로 있는 장남 「유리」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않았다. 아버지를 임종했다는 말은 더더구나 없다.

브레즈네프의 사망 장소는 자택과 병원으로 갈린다. 손자 손녀와 함께 있다가 잠자듯이 숨을 거두었더라는 「인간미가 가미된 최후」를 말하는 소식통이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7일 혁명기념일 퍼레이드에 나갔다가 쓰러진뒤 병원으로 급송되어 이틀째 가료를 받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영웅」의 최후를 미화는 커녕 숱한 의문속에 남겨두는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브레즈네프 죽음직전에 나돌던 치열한 후계투쟁설에 신빙도를 더해준다. 런던발로된 로이터통신은 브레즈네프가 이미 「有故」상태에 들어갔고 실질지배는 안드로포프 등 3인조가 하고있다고 지난 9일 보도했었다.

숫자놀음같지만 브레즈네프사망과 공식발표 사이가 26시간반, 그로부터 27시간뒤에 안드로포프를 黨중앙위에서 서기장으로 선출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브레즈네프후임을 뽑는 중앙위는 원래 15일에 열리기로 되었다가 22일로 연기되었다. 그것이 앞당겨져 전격적으로 소집된 이유는 무엇일까. 12일 열렸다는 소련공산당 중앙위는 안드로포프자신이 주재한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인 브레즈네프가 有故이므로 마땅히 사회봉을 들었어야 할 사람은 쿠즈네초프 부의장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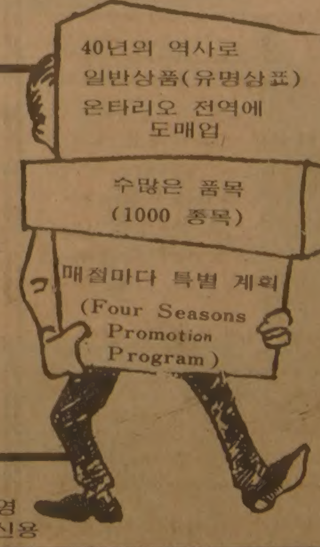
브레즈네프의 죽음을 전후에서 주목을끈 인물은 키릴렌코다. 유력한 후계물망에 올랐던 그는 브레즈네프죽음직전 행방이 묘연했다. 65주년 혁명기념일때 그의 초상화는 떼어져 어디론지갔다가 다시걸렸다. 그리곤 노조회관에 조문객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안드로포프의 집권과 동시에 그의 아들이 마드리드의 유럽安保회의에 참석중이라고 所在를밝히면서 브레즈네프아들「유리」에대해서 함구하고 있는것과 관련, 어두운 여운을 남긴다. 새로운「露의 대리인」의 등장이면에있음직한 암투의 진상이 밝혀지려면 또 얼마간시간이 필요할것같다. 【金炳武기자】

"WE' LL TRADE YOU PROFIT FOR SPACE"
"소매업을 위한 또 하나 전통의 도매상이 여기 있읍니다"

⊙모든 부문에 알기쉽게 가격을 붙여 진열준비.
⊙최소 인벤토리—최대 매상.
⊙직접 회사에서 배달함.
⊙편리 "ONE STOP" 일반상품계획
⊙일정하게 가게 써비스.

○모든 장난감종류
○각종 문방구
○재봉에 관한 종류
○하드웨어 종류
○스타킹 종류
○Pet Supplies
○Baby Products(어린이용 기구)
○전기기구 종류(전기코드, 밧데리)
○고무제품
○Hair Care
○집기종류(House Ware)
○알미늄, Foil종류
○Glass Ware
○Cleaning Aid



GOODWIIL SALES LTD. (킬과세파드북쪽) 88 STREGIS CRES SO., DOWNSVIEW ☎ 630-5401 ※주문 환영 ※철저한 신용

美·蘇의 새體制 "희망속 觀望"

브레즈네프以後 <2>

"蘇의 대외정책은 不變" 一連의 평화공세펼듯

美·蘇역학의 變數

【워싱턴=李文熙특파원】 새벽뉴스를 통해 브레즈네프 사망소식이 전해지고 TV들은 잇따른 방송으로 이 소식을 美국민에게 알리자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브레즈네프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새로운 소련의 지도체제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美3大TV에 번갈아 등장한 닉슨과 카터등 전직 대통령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는 소련의 미국을 포함한 對外정책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을것이라 내다보고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18년간을 기다려온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수있는 절호의 기회인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소련은 그방대한 힘의 배경때문에 양국의관계는 늘 세계기상을 좌우해왔다.

冷戰에서 동서화해(데탕트)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기록을 거치면서 양국이아슬아슬한 위기를 피해온것도 이러한 양국의 힘때문이며 이것은 두나라관계의 典型이기도 했다.

브레즈네프 사망이 이러한 양국간의 典型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는 엄격히 말해 美·蘇만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세계전체의 관심거리다.

소련에 급격한 정책변화가 없으리라고 전망하는근거는 소련내부에대한 몇가지 구조적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조지타운大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金昇煥박사(정치학)는 소련이 특이한 1人독재체제를 유지해왔고 특히 브레즈네프는 이런 방식으로 黨과 정부를 운영해왔지만 소련의 對外정책에 있어서는 분산된 立案과정을거쳐 왔다는 전통적구조를 이해해야만 할것이라 말했다.

金박사는 이런 상황아래서 새후계자의 지도체제 구축으로 당분간 소련은 대외정책에 있어 위험부담을 멀리할것이 당연하며 이런점들이 당장 소련의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근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후계자가 누가되는간에 당분간은 군과 소련비밀경찰(KGB)의 지지를 한몸에받지않는한 현실은어떻든 실제적인 집단지도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크며 이때문에 對外문제만은 既存의 대외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장악된채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는것이다.

물론 이런정책변화가 당장 없으리라는점을 예측하면서도 미국내에서는 「개선의 기회」「최소한 대결완화의 기회」라는 희망도 꽤 많다.

11일저녁 중간선거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한 레이건대통령도 소련과의 관계개선희망을 밝혔었다.

레이건대통령의 말은 정치적 제스처라고 할지라도 TV에 나온 카터前대통령은 브레즈네프시절, 소련에 대결불위한 힘을 양성시켰지만 앞으로는 무기제한 협상문제등에서 레이건행정부와 보다나은 조화를 이룰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포드 前대통령은 미국이 경계심을 완화해서는안된다고 경계했고 닉슨은 브레즈네프가 침략자이긴 했지만 절코 전쟁을 원하지는않았었다고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키신저박사는 새로운 소련의 지배체제가여유를 갖기위해서도 일련의 평화공세 같은것을 해올지도 모른다고말했다.

키신저의 말은아니지만 그런화제의란 미국에 대해 데탕트의 회복과 타협의유연한자세를 취하는자세 일수도있고 중공과의 관계정상화 신호로 中蘇국경에서 일부 소련군대를 철수할수도 있으며 일본을 의심해서 일본의 시베리아 개발지원 몇가로 쿠릴열도반환을 규정한 (1956)년 協定의 복귀를들고나올 가능성도있고 아프간에주둔중인 쿠바군의 일부철수를 흥정거리로 들고나올것등이 포함될수있을것이다.

이런 가정들은 美·蘇의 현실적문제에 투영해보면 전망은 달라진다.

미국이 가장최근에 소련에 대해 본격적합의를 제기했던 폴란드와 아프가니스탄사태와 남미에서의反정부 게릴라활동을 고려해보면 전망이 달라진다는것이 더욱 확실해 진다.

관계자들은 소련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이런실제문제에있어서후퇴도 없다는 얘기이며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이나 폴란드사태에서 어떤 좋은징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관계개선희망을말하면서도 레이건이 직접브레즈네프 장례식에 참석해야한다는측근일부의 권유를뿌리치고 부시 부통령을대신 보내기로 한것도 후퇴하지않는 소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것같다.

결국 악화만이 방지되는 現狀의 계속으로 봐야할것같다.

레이건의 취임이래 계속되어온 對蘇 강경책과 국방비증액등은 드디어 지난 10월28일 브레즈네프의 비난을 가져오기도 했다.

對蘇강경론자인 레이건은 소련의 태도를 점치는 몇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빈에서 열리고 있는 병력감축회담과 제네바의 전략무기감축회담이다.

레이건의 평가는 이두 회담에서 소련은 모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레이건에게 對蘇강경책을 그대로 견지해야한다는 근거가 되어왔다.

레이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삭감의 힌트를 풍기긴 했지만 무기체제란 1~2년에 완성될수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 국방비지출규모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을 암시했다.

군비면에서 美·蘇의 쟁점은 전략핵무기와 크루즈및 퍼싱등 단거리핵무기의 유럽배치 문제였다.

미국은 그간 지상 미사일감축을 제의해왔지만 소련이 지상미사일에 더 크게 의존하고있는 현실에서 이제의는 사실상 거부되는등 군축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축문제에 관해 따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다분히 새로운 소련지도체제를 겨냥한 또 한번의 감축제의의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곡물수출금지와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건설장비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 카터 前대통령에의해 내려졌던 對蘇곡물수출금지 조치는 레이건에의해 이미철폐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럽국가의 비난상이었던 파이프라인문제도 유럽과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완화할것으로 알려져 경제제재조치는 사실상 모두 풀릴것으로 보인다.

이런상황을 두고 관계자들은 레이건대통령이 군비증강을 통해 대결의힘을양성하는 한편 실질적이고신퇴할수있는 군비축소만이 소련과의 긴장완화를 유도할수있는 현실성있는 방안으로 보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새로운 지도체제에 기대를 가지면서도 소련에대한 미국의정책을 변경시켜야만 할 아무런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련의 새지도체제가 필요한만한 후퇴나 타협의변화를보이지 않는한 미국으로서는 당분간 관망의 기간을 가질것으로 보인다.

◇「브」參席마지막 美·蘇정상對坐 브레즈네프 ⓢ로서는 마지막 이었던美·蘇정상의 대면. 지난79년6월 빈에서열린 2단계 미·소전략 무기제한협정 조인식에서 카터미대통령과 브레즈네프는 굳은 악수를 나눴지만 美·蘇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어왔다.

「年內파견」엔 難關이…

레바논派兵경우 어떤問題가 있나

우리安保 문제점 보완 先決

北傀의 惡宣傳·좌익선동 테러工作도 경계해야

◇贊反맞섰던 「派越」 한국군의 派越문제를 두고 贊反양론이 팽팽했으나 自由수호라는 명분을 따라 파병이 실현됐다.

레바논派兵에 관한 우리정부의 현입장은 「갈것인가 안갈것인가」로 고민중이라고 할수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1일 『현재는 白紙상태다. 고양이를 그릴지 사자를 그릴지는두고봐야한다』면서 「이문제에 관한 관련자료를 집중이며 여론에도 귀를 기울일것」이라고 말했다.

외무부관계자들은 11일부터 派兵문제가 거론될때마다 『派兵이 아니라 파견이라고 하는것이 좋다』면서 『派兵이라면 싸우러 가는것이지만 이번에는 多國籍국제평화유지軍에 참여하는것이기 때문에 「참여」「파견」으로해야 올바른 표현이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의 레바논 파견이실현될것인지 不發로 끝날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지켜봐야겠다. 그러나 모로코와 요르단등 주변의 穩健 회교국가들은 한국군의 파견을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온것으로 알려져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있다.

많은관계자들이 한국이 레바논 정부로부터 서방선진국들과 함께 국제평화軍참여요청을 받은것은 한국의 국제적지위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있다. 또 레바논에 한국군을파견함으로써 한국의 우수성을 中東지역에 보이고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되는것으로 커다란의의가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과 잠점의 이면에는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점도 없지않다.

첫째 名分論을 들수있다. 즉 「다국적 平和軍에의 참여」란 명분에서 平和의 의미를 검토해 봐야한다. 누가 추구하는 누구를 위한 平和인가하는점에서 국제적인 平和, 보편타당성이 있는 평화추구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레바논분쟁은 平和軍은 하비브美特使의 中東平和案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이스라엘과 PLO 레바논 정부간에는 합의한 사항이지만 고질적인 中東의 한 火藥庫의 불을끄는소방수役이란데 파견의 의의를 둘수도 있다.

그러나 中東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만큼 제3세계국가들과도 관계강화를 추구하고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非同盟권의 광범한 의사를 존중할후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같다.

비동맹 국가들이 한국과의 외교관계수립을 기피해온 이유의 하나가 한국이 미국과 지나치게 밀착된 인상을주고 있기 때문이었음을 음미해야 한다.

또 다국적 平和軍에참여함으로써 레바논의 戰後복구사업 참여란 경제적 實利를 내세우는 주장도 있지만 국제平和라는 명분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實利와 한국군파견과는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레바논에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생길 가능성이있는 우리安保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하는 것이다.

한국군파견이 확정된다면 精銳부대를 보낼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레바논에는 유엔레바논잠정주둔군 (UNIFIL)으로 11개국 군대가 파견되어 있으며 여기에 다국적 平和軍으로서 수개국의 군대가 다시 파견될경우 레바논은 각국군대의 展示場이 될것이며 이 전시장에는 규율이 엄한 정예부대를 보내야만 국가위신이 손상되지않기 때문이다.

65년 한국군을 越南에 파병할때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확고한 책임을 약속함과 동시에 한국군의 火力, 통신, 기동력면에서 군장비의 현대화를 先行시킨점을 상기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 軍파견에따른 일체의 경비가 自國부담이란점도 한국의 입장에서 부담스런 조건이다. 수백수천명의 병력이 이동하는데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된다. 레바논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는 遠거리에 놓여있기때문에 가까운 東南亞국가에 파견하는것과는 차이가있다.

또 레바논은 우리나라와언어풍습이 다를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는 적응이 얼마나 용이할까하는것도 의문시된다. 우리장병들의 현지적응훈련도 필요한데 레바논의 12월파견은시간적으로 사실이라면 시간적으로도 적지않은 문제가뒤따른다.

越南派兵때는 우리나라에서 수개월간에 걸친 사전훈련이 있었으며 병력의 해외파견에는 이에 앞선 사전훈련이 필수적인점을 감안할때年內파견은 어렵다는 견해도나오고있다.

일단 현지에 파견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따른다. 平和유지군의 역할은 自衛의 한계를 벗어날수없으며 어느집단으로부터 도발을 받았다고 하여 공격을 가할수도없다. 즉 전투부대의 성격이 아니라 치안유지만을 위한 경찰의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일부수행중 左右派싸움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으며 모슬렘左派 게릴라로부터 기습공격을받았을때 이에대한 보복을 감행했다가는 전체회교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위험마저있다.

같은 레바논軍내에도 지휘관은 右派인 기독교민병대출신이많고 일반사병들은 모슬렘左派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軍자체가 일체감이 거의 없는데다 左右派가 언제어디서 불꽃을 튀길지모르는 상황에서 현지파견 한국군이平和維持軍으로서의 기능을무사히 끝낼수 있을지도 염려된다.

또한 병력규모를 어느정도로 할것이며 현지의 주둔지역이 어디로 될 것인가도 미리 확답을 얻어야한다. 현지의 국제평화군은 美軍이 1천4백명, 이탈리아軍 1천2백명, 프랑스軍 1천2백명등모두 3천8백명이며 앞으로아민·제마엘 대통령 구상대로 평화군병력이 3만명으로늘어날때 兵力을 國力에 따라 배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그것은 이들 3개국과 레바논이 추가로 파견을 요청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등은 우리보다 경제력이앞선 선진국들이며 우리처럼敵과 대치한 상태는 아니란점을 분명히 하고 레바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성의를 표시하는 線에서 머물러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지주둔지역이 시리아軍이 집결해있는 베카溪谷이나 PLO殘存세력또는 모슬렘左派가 陣을치는 지역이라면 여러가지로 생각해봐야할 것같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軍파견 요청을 받은 餘他국가들의 반응도 예의주시해야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반응은 벨기에만이 『고려 한다』는 입장이며 네덜란드는 『새부가 지난4일 출범했기때문에 이문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필요하다』는이유를 내세워 잠시간에 걸쳐 深思熟考할 태세를 보였고, 스웨덴역시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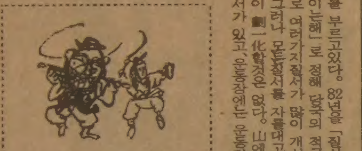
뿐만아니라 추가로 요청을 받은 오스트리아 벨기에스페인 泰國 콜럼비아중 오스트리아는『헌법에 유엔과 같은국제기구의 테두리를 벗어난 어느 개별국가의 요청에 의해서는 군대를 파견하는것이 금지돼있다』고 정중한 사양의사를 표했으며 여타 4개국도 타국들의 눈치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북괴의 惡선전, 특히 左翼게릴라들을 앞세운 테러工作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이번 軍파견문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적극 진출, 참여하는 계기가 될것은 분명하나 외교및 實利面에서 長短期利害得實을감안,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것이다. 【李在鉉기자】

메아리

流燈



金聖佑 <編輯委員>

晋州市에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開天藝術祭가 열렸다. 開天藝術祭는 우리나라의 地方文化祭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것으로 올해 32회째가 된다. 鄕土藝術祭의 元祖답게 규모가 크고 행사도 다양하며 해마다 대성황을 이룬다.

開天藝術祭에는 각종 경연대회가 있지만 그가운데 가장 특색있는것이 流燈대회다. 가지각색의 大型燈 수백개가 밤이되면 晋州城의 矗石樓앞의 南江에서 江물따라 흘러지어 흘러간다. 南江은 壯觀이 된다. 燈들은 하류로 하류로 떠가며 江邊 마을들을 비춘다. 용케 중도에서 꺼지지만 않으면 洛東江 河口까지 가 닿을것이다.

이렇게 화려한 開天藝術祭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시들하다는것이 시민들의 말이었다. 5일 개회식에 참석한 李圭孝 建設部長官이 「다른해보다 열기가 모자란것같다」고 지적했다. 이자리에 있던 성호덕 晋州市長은 「질서를 지키느라고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

예술제 기간동안 例年에는 矗石樓주변일대는 갖가지 露商人들이 모여 큰 路市를 이루었다. 이것이 구경거리였고 이 예술제의 분위기를 돋구는것이었다. 이 상인들을 올해는 질서를 유지한다고 도시 외곽에 있는 공설운동장앞으로 쫓아버렸다. 시내는 텅비어 축제분위기는 식어버렸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다 공설운동장까지 따라 나갈수도 없다.

개회식에 이어 가장행렬이 거리를 지나갔다. 당초 市에서는 이 행렬의 맨선두에 「질서」라고 쓴 팻말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제의 흥을 깬다고 주최측에서 강력히 반대하여 이案은 철회되었지만 그 팻말의 정신이 이번 예술제의 곳곳에 숨어 있었다.

晋州에서도 일부 경기가 벌어졌던 지난번의 慶南體典은 「秩序體典」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馬山市에 가보면 시민들에게는 불만이 있다. 강요된 질서라는 것이다. 馬山 車는 시내를 다닐수없었고 그래서 都心地의 상가는 보통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되었다.

內藏山에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직원은 요즘은 山이 질서가 잡혔다고 좋아했다. 山에서 시끌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덩실덩실 춤들을 추면서 얼씨구 절씨구 노래를 하던 모습이 없어졌다. 관리원들이 다니며 금지를 시키고있고 山를 부르고있다. 82년을 「질서의식을 높이는해」로 정해 당국의 적극적인 啓導로 여러가지질서가 많이 개선되어간다.

그러나 모든질서를 자를대고 줄을 긋듯이 劃一化할것은 없다. 山에는 山의 질서가 있고,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질서가 있고, 祝祭에는 祝祭의 질서가 있다. 祝祭나 놀이의 질서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車를 탈때 줄을서고 車가 길을달릴때 車線을 지키고해야한는것같은 얼마든지 강요되어 마땅한 질서와는 다르다. 질서의 강조가 전에 국민의 흥과 신명까지 함께 눌러버리지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네처럼 흥과신명이 많은 민족도 드물고 이것이 우리의 커다란 기운인데 이것을 꺾다가는 자칫 겨레의 기를 꺾기쉽게된다. 이것을 「질서있게」잘 살리면 겨레의 活力으로서도 무턱 他律의 질서에 반감만 가질것은 아니다. 自律이 앞서지 않으므로 항상 他律이 있다.

慶南의 體典이 열리기 얼마전 李慶南知事는 馬山의 새 야구장 開場기념으로 열린 야구대회에 始球를 하러 들어가려다 무질서하게 모여든 人波때문에 입장을 하지 못했다고한다. 새 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대회때도 始蹴을 못하고 물러났다. 이래가지고야 全國體典을 어떻게 치르겠느냐고 분개한것이 결국 他律의 「秩序體典」이 되었다.

開天藝術祭에서 南江에 둥실둥실흘러가는 流燈은 아름답다. 저마다 다른 모양과 빛깔을 하고 제각기 저절로 떠가지만 그 조화가 이루는 秩序, 이것이 이 예술제의 분위기를 빛내주고 있었다. 【晋州에서】

TV、新聞못따른다

★美앵커맨 크론카이트力說

미국의 저명한 앵커맨출신인 월터·크론카이트씨는 TV가 신문의 광고수입을 빼앗을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신문의 기능을 대신할수는 없을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론카이트는 최근 캔버라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하루저녁에 30분짜리 뉴스를 방영하는 TV로서는 그날의 뉴스를 제대로 전달할수 없다면서 신문을 비롯한 다른 매체들의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TV보는법, 신문읽는법 그리고 라디오방송듣는법등을 교육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UPI】

◇男便바웬사 釋放소식을 듣고…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의 부인 다누타 여사가 12일 남편이 며칠내에 석방될것이라는 공식발표를듣고 막내딸을 안아올리면서 즐거워하고있다. 【그다니스크(폴란드) 12日UPI=聯】

海外토픽

「노브라」出勤 직장서解雇

佛여인"男女차별이다"告訴제기

브러지어를 착용치않고 직장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프랑스 여인이 회사를상대로 고소,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77년 경리직원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던 금년25세의 이 여인은 늘 브러지어를 걸치지않은 옷차림으로 출근, 남자직원들로 하여금 일손을 처놓고 멍하니 쳐다보게 한다는 핑계로 그녀 사무실을 들락거리게 했다는것.

이에 격분한 사장이 그녀에게 수차 경고했으나 그녀는계속 이를 무시, 결국 80년 파면처분을 받게되자 남녀차별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 1심에서 패배한후 이번에 다시 항소한것이다. 【낭시=UPI】

다시 男性으로還元

★性전환女人 병원提訴

지난5월까지만해도 어엿한 세아이의 아버지였으나이제는 여성으로 탈바꿈한 한여인이 자신의 성전환수술을 담당했던 의사4명과 병원을 상대로 5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미니애폴리스=UPI】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확장 이전
케네디 꽃집
- 각종 Arrangement
- Plant화환
- 주문배달
- 꽃 도산매
2196, 2252-4 BLOOR ST.W.
762-1572
대표 김 웅 일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어×영 남쪽)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아침 한때

두얼굴의 第1人者

權座오른 안드로포프… 어디로 갈것인가

曺淳煥 <本社 논설위원>

흐루시초프가 64년 크렘린權座에서쫓겨났을때 세계는 불안에 감싸였다。軍部의 지원을 받은 궁정혁명으로 흐루시초프가 돌연히 실각했기때문이다。갑자기 일어난 政變이라 소련政策의 向方을 내다보기 어려웠다。

소련 지도층에 軍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것을 西方세계는 두려워 했다。

하지만 소련은 西方에대해 군사위협정책으로 나오지는않았다。브레즈네프、포드고르니、코시긴 3者로 형성된 集團指導制는 第1人者를 내는 권력투쟁에 완만한 것이기했으나 촛점이 두어졌다。對外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놀라지 않은 死亡

이번 브레즈네프死亡에 세계는 거의 놀라지 않았다。그의 死亡이 금년 봄부터 예측되어 왔다。워싱턴 政街는 브레즈네프 死亡에 조용하고도 침착한 반응을 보일수 있었다。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기 얼마전에 美國務省은 브레즈네프死後의 소련에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그 國務省 보고서는 브레즈네프이후의 소련은 변화보다도 持續의 길을 걷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 보고서는 크렘린지도층이 정책변화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 변화속도에 제동을 걸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레즈네프가 사망한지 이틀만에 68세의 유리·V·안드로포프 전KGB(비밀경찰)위원장을 黨서기장으로 선출한것은 다소 놀라움을 자아낸다。안드로포프가 黨서기장으로 뽑혔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지도자를 잃은지 이틀만에 약 3백명의 黨中央委를 소집하여 전격적으로 새지도자를 지명한 그속도에 경탄하지 않을수 없다。

소련에서 黨서기장직을 맡게되면 우선 동료중의 제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게되는것을 뜻한다。브레즈네프가 黨서기장에서 최고회의간부회의장직을 겸하게 된것은 77년때부터였다。

黨서기장이 黨優位權力구조체제서 政治의 實權을 휘두르며,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은 상징적국가원수의 범위를 넘어서지않는다。하지만 브레즈네프가 1인독재체제를 완전히 굳힌것은 포드고르니를 최고회의간부회 의장직에서 축출한 이후부터였다。

당분간 雙頭馬車

최고회의간부회의장 선출권을 가진 최고회의(議會格)는 오는23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안드로포프의政敵 체르넨코(71)가 간부회의장으로 뽑힐것이란 보도다。체르넨코가 안드로포프를 당서기장으로 천거한것으로 보아 체르넨코의 선출이 굳어진것으로 보여진다。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가 이끄는 雙頭馬車가 크렘린 集團指導體制를 당분간 이끌어 갈것으로 관측된다。

소련의 1人獨裁者가 사망한후 그 공백을메운 集團指導制중 先頭走者가 反연합세력 형성으로 실각된 경우가 흔히 있었다。레닌사후의 트로츠키나 스탈린사후의 베리야가 숙청된 先頭走者들이었다。

그러나 안드로포프의 경우는 좀 다르다。1인독재자가 갑자기 權座에서 사라진후 안드로포프가 어슬프게 先頭走者의 자리를 메운것은 아니다。브레즈네프의 건강이 금년초부터 현저히 악화되어 권력행사에서 거의 상징적존재로 후퇴하고, 또 제2인자였던 수슬로프가 지난1월 사망한후 안드로포프는 착실하게, 차근차근히 先頭走者의 위치를 굳혀왔다。지난5월 브레즈네프는 그의측근 체르넨코를 黨中央書記局 서기지명을 추진했으나, 결과는안드로포프에게돌아갔다。이때부터 소련政治局과 黨中央委에서 안드로포프의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이 표면에 드러난 셈이다。

안드로포프가 재빨리 黨서기장으로선출된데는 18년 브레즈네프정치가 벽에 부딪친데서 가급적 빨리 새지도자를 세계에 내세우는것이 급선무라는 黨內분위기가 작용한것같다。

소련은 힘의優位에 토대를둔평화라는 레이건美행정부의 對蘇강경책의 도전을 받고있다。아프가니스탄사태는 전망이 보이지않는 끝없는 부담을소련에 안겨주고있으며,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은 일응 진압이되었다고는하나 불안한불씨가 잠재해있다。아프리카에서 소련의대리세력이되고있는 쿠바와 캄보디아를군사점거한 베트남을 지원하는등「소련帝國」을 유지하는 경비는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소련경제에 큰타격을 주고있다。

소련경제는 70년대초부터 GNP의12~15%를 군사비에 투입한이래 악화에로의 하강곡선을 그렸다。지난2·3년동안 소련은 흉작이 계속되어 연4천만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처지에놓여있다。

60년대의 고도성장은 사라지고 농업부진과 함께 공업생산성의 저하로 소련경제는 전반적 침체에 빠져있다。

새지도자의 새스타일에 의한 政治가 시급하지 않을수없다。

소련의 내외정책에 활력소를 불어넣는것이 시급한것이라고해서 권력투쟁이 자취를 감추는것은 아닐것이다。소련권력구조의 성질상 권력투쟁은 불가피한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궤적이다。

하지만 브레즈네프 18년 정치가 비교적 과격한 숙청을 빚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18년정치아래서 뼈가 굵어져온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그리고 그다음을 바짝 따르는 68세의 정치국원 그리신에 영향주지 않을수 없다。또한 피의 숙청을 멀리해오는 소련정치풍토의 발전도 간과할수없다。스탈린 이후보다, 흐루시초프이후가 덜 과격했고 브레즈네프때의 포드고르니 去勢는 권력에서 은퇴시켜 年金생활을 누리게하는 정도로까지 완화되었다。

이런 풍토에다가 이미 68세의 고령으로 가벼운 심장질환을 앓고있다는 안드로포프가 재1인독재자가 되기위해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할것같지는않다。설령 그런뜻을 갖더라도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 형편일는지 모른다。

능란한 外交솜씨

소련에서 KGB와 軍部는 전통적으로 나쁜 敵對관계에 놓여있다。상호간에 견제역할을한다。15년간이나 KGB위원장을지낸 안드로포프에 軍部가 호락호락 넘어가 안드로포프의 손아귀에 들어가지는 않을것이다。

오히려 안드로포프가 재빨리 쉽게 黨서기장으로 선출된데에는 軍部지도자들과의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졌기때문일는지모른다。『소련군의 無敵의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그의 선언이주목을끈다。그타협은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도 군비는 삭감하지않으며, 권력투쟁을 피하고 50대의 장래소련지도자 육성에 힘을기울인다는것일수도있다。

미국측에서 관측하는 이른바『2段階權力承繼』論이다。정치국원으로 농업문제 전문가인 51세의 고르바체프등 50대의 장년지도층의 육성이다。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 路線의계승을 다짐했지만 그가 集團指導體制서 정치기반을 다져감에따라 새스타일과 정책의 궤도수정이 뒤따를 가능성은 짙다。

금년초부터 浮上하는 안드로포프를예의 관찰해온 西方의 소련문제 전문가들은 그를 強穩 두 얼굴을가진 수수께끼의 사나이로 평가한다。그는 헝가리 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정책을 전의하여 KGB두목이 되었으며, 소련 이단자들을 때로는 강하게 탄압하며 또 회유하기도 하는 능란한 수완을보였다。

그가 연설할때는 부드러운 어조로 강경한 내용을 삼가한다는 정평이다。안드로포프는 東歐圈밖을 넘어 西方세계로 여행하지 않았으나, 영어를 잘구사하며 영어서적을 많이 읽어 西方사정에 정통하다는것이다。헝가리 대사를지낸 경험도있어 西方지도자들과 같은 주파수로 대화와 협상에 응할수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에게 각별히 관심을 끄는것은 한반도에 영향줄 그의 對美、對중공、對南北韓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것인가에 있다。

미국과 팽팽히 맞서 군사력을 증강해 가는 현 소련정책에 일방적으로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것이다。소련이 中共과의 正常化에 공정적자세를 보이기 시작한것은 미국과의 대치를 의식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때문이다。中共과의 접근시도가 브레즈네프가아닌 안드로포프의구상인것같은 느낌마저든다。폴란드 사태대책을 둘러싼 美·西歐간의 균열을최대로 넓히려고 시도할것도 뻔하다。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석방이 그런계산에서 나왔을지 모른다。

타스통신기자와 文化省高官을 서울국제회의에 참석시킨 관계개선방향을 그대로 두면서, 平壤의 태도에 따라서는 北韓과의 협력증진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짙어보인다。

지도자의 얼굴이 바뀌는것은 소원했던 관계를 호전시키는데는 매우 좋은계기가 되기때문이다。

안드로포프時代 개막

브레즈네프以後 <3>

진정한 後繼者 될는지…

經濟難 타개등 급선무

유리·안드로포프(68)가 소련공산당서기장에선출됨으로써 브레즈네프 시대를 뒤이어 안드로포프 시대가 일단개막됐다。

안드로포프는 취임사에서 브레즈네프가 추구했던 레닌주의적 국내외정책들을 수행하는데 계속성을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노련한 외교관출신인데다가 10여년동안 소련비밀경찰(KGB)의장직을 수행해오면서 소련의 어느누구보다도 서방을 잘알고있는 안드로포프답게 당장은 브레즈네프노선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방의 소련관측통들은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의 후계자가될경우 소련의 對外정책이 브레즈네프路線에 가장 충실할것으로 전망해왔다。

동서화해(데탕트)를통해 긴장완화를 꾀하면서 소련세력의 꾸준한 팽창을 도모하고、미국에 대한 소련의 군사력우위를 계속지켜나가겠다는게 브레즈네프외교노선의 골자로 볼수있다。

안드로포프는 이러한 브레즈네프路線을 당분간 추종할것으로 보인다。

軍·소장세력 變數

안드로포프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소련의 외교정책변경보다는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는 소련의 경제난을 타개하는 일이다。

브레즈네프는 소련을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으로 키워놓는데는 성공했지만 분에넘친 군사비지출과 연이은 흉작등 경제정책의 실패로 소련국민의 生活苦를 가중시켜놓았다。

안드로포프는 우선 브레즈네프가 소련국민에게 남긴 부채를 해결해야만할 입장에 놓여있는것이다。

안드로포프는 취임사에서 소련의 경제력을 증대시키고 소련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56년 헝가리사태때 헝가리주재 소련대사를 역임한바있고 북한、東歐、중공、蒙古등 거의 모든 공산국가를 방문한적이 있는 노련한 외교관 출신인데다가 소련의 모든 정보통제권을 한손에 움켜쥔 KGB의장을 지낸바있는 그의 前歷으로볼때 군사모험주의와 같은 급격한 정책변경을시도할것 같지는 않다는게서방소식통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후계자로 유력하다는것은 진작부터 예상되어 왔었다。

그러나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의 사망후 이틀만에 그리고 사망발표 하루만에 이처럼 신속하게 후계자로 결정된것이라는 예상은 별로 없었다。

그만큼 안드로포프의 브레즈네프死後대비가 철저했음을 말해주고있는것 같다。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가 남긴 서기장과 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 직책중 서기장직만을 이어받았다。서기장은 소련의 실권기관인 소련공산당의 최고지위이고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직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이다。

소련의 모든권력은 黨으로부터 나오기때문에 黨의 우두머리인 서기장이 바로 소련의 최고권력자가된다。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후계자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것은 지난5월 24일부터 안드로포프가 수슬로프사망으로 남겨진 권력공백을 메우고 수슬로프가 맡아왔던 黨의주요업무를 떠맡을때부터였다。

안드로포프는 이때 자신이 15년동안 맡아왔던 소련비밀경찰(KGB)의장을 자진사임하고 黨서기로 선출되어 정치국원과 黨서기를 겸했었다。

黨서기직과 정치국원의 겸직은 소련의 최고실력자가 되기위한 필수요건으로 통한다。

안드로포프는 KGB의 장이라는 검은이미지를 씻기위해 스스로 의장직을사임하고 그후임에 자신의심복인 페토르츄크를 앉혀KGB의 방대한 조직을 통해 소련의 구석구석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참이었다。

안드로포프는 KGB를 통해 브레즈네프死後에 대비하여 反체제인사에 대해 철저한 탄압을 가했고 브레즈네프가 은퇴할것이라는 루머를 의도적으로 서방매스컴에 흘린 장본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봄에 있었던 브레즈네프가족들을 둘러싼 스캔들과 브레즈네프 중태설도 안드로포프가 KGB를 통해 조작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안드로포프는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크렘린권력투쟁에서 브레즈네프의 총애를 받아온 체르넨코와 치열하게 경쟁해왔다。

브레즈네프의 집권시단인「드니에프르마피아」의 리더격인 체르넨코는 브레즈네프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지나치게 브레즈네프의 후광에만 의존,黨內에 세력기반을 쌓지못해 후계자 경쟁에서 안드로포프에 밀린것으로 보인다。

◇숱한競爭者 물리치고… 항상 브레즈네프 가까이 있었던 안드로포프(맨윗줄 가운데)。그러나공식석상에 모습을 잘내놓지 않았던안드로포프는 80년 6월 국가안보위원회(KGB) 의장겸 정치국원으로서 蘇연방최고회의에 참석, 브레즈네프서기장(아랫줄 맨오른쪽)으로부터 한시도 눈을 떼지않았다。그는 이제 후위의 유력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소련의 최고통치자가 됐다。

안드로포프가 12일의 중앙위에서 만장일치로 서기장에 선출되었을때 체르넨코역시 안드로포프를 추대했다。

안드로포프가 예상보다 이례적으로 빨리 후계자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크렘린 權力투쟁의 종말을 의미하는것은 물론 아니다。

안드로포프의 세력기반인 KGB는 전통적으로 소련군부와 대립관계에있다。

안드로포프의 후계자선정을 보는 소련군부의 입장이 안드로포프시대를 좌우할 가장큰 변수가 될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소련에서 절대권력자가 죽었을때 후계자의 선두주자로 나선인물은 모두가 실패로 끝났다는 前例도 고려에 넣어야한다。

레닌이 죽은뒤에 트로츠키가 그랬고 스탈린死後의 베리야와 말렌코프 경우가 그랬다。

안드로포프는 KGB의장 출신으로 스탈린후계자를 노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친 베리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것같다。

소련에서 한사람이 全權을 장악하고 1人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는 대개 5년안팎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탈린과 흐루시초프도 1人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5년정도가 걸렸다。

브레즈네프역시 18년집권기간동안 1人지배체제를 구가한것은 겨우 절반정도 기간에 지나지않았다。

안드로포프가 자신의 완전지배체제를 확립하기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안드로포프가 명실상부한 후계자의 위치를 채굳히기도 전에 또다른 權力투쟁이 일어나 보다 젊은 세대가 군부의 지지를 업고서 得勢할 가능성도 생각해볼수 있다。

소련의 권력투쟁이 대개의 경우 2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일단은 안드로포프승리로 돌아간 후계자선정작업이 이제 겨우 1단계만 끝나지 않았나하는 추측도 가능하게 하고있다。

2단계 권력투쟁이 본격화될경우 안드로포프서기장후에 부상할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로마노프(59) 레닌그라드 黨제1서기와 세르비츠키(64) 우크라이나 黨제1서기및 고르바체프(51) 농업상등이 꼽히고 있다。

【李炳圭기자】

메아리

前轍

파고다 공원의 모습이 다시 바뀐다고 한다。공원을 둘러 지었던 상가아케이드의 2층건물(1천36평)을 철거하고 조경을 새로 한다는것이다。

참 반가운 일이다。조경공사가끝나고나면, 서울 도심에서 '앓던 이' 하나가 빠진듯 할것같다。

파고다공원은 3·1운동의 발상지로서, 憲法前文에 밝힌 우리 건국정신의 연원이 깃든 곳이다。우리나라에 처음생긴 근대식 공원이란것 만으로도 그原型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이 헐린다고 해서、파고다공원은 예대로 일수가 없다。그럴수밖에 없을만큼, 서울시는 파고다공원을 망가뜨려 놓았다。

이번에 1억7천만원을 들여 철거할 상가건물은 그런 결과를 빚은 沒意識、그리고 無定見한 도시계획의 한 상징이다。그것은 60년대 서울시가 창안해냈던 이른바 民資사업— 시민들의 세금을 들이지않고 도시를 개발한다는 방식의 妙味가,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쓴맛을 남길수있는가를 보여준다。

파고다공원의 상가 아케이드가 구상된것은 66년, 기공은 이듬해 4월이다。1억2백만원의 民資를 유치하여 상가를 짓게하면, 공원의 개수、주변의 재정비등을 돈 안들이고 할수있으니 一石二鳥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달랐다。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鍾路2街와 忠武路2街를 잇는 3·1路가 폭40m로 확장되면서、상가터로 예정됐던 鍾路도서관 자리가 도로부지로 편입됐다。그러자 서울시는 어물쩍 상가를 뒤로 물려 앉혀 공원부지 몇백평을 차지하게 했다。공원의 역사적인 가치말고도、당시 싯가 2억원의 금싸라기 땅이다。

더하여, 이 상가는 건축허가、시장허가가 미비하고 공원법에도 어긋난 不法투성이였다。그래서 건설부는 공사의 중지와 철거令을 내리기도 했으나、몇달 뒤 공원설치 목적에 맞는 문화시설을 갖춘다는 조건부로 공사를 事後승인했다。그 조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상가는 이렇게 억지와 行政亂脈을 한데 빚어 준공을 보았다。

말썽은 이에서 그치지를 않는다。준공이 된뒤 공원을 有料化하는바람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졌다。이듬해에는 사업자가 점포보증금 1억4천만원을 챙겨 야반도주했다。

한가지 다행은 이 사업에 15년이란 기한이 붙은 것이다。그 때문에 서울시는,해 묵은 소송절차를 거쳐서나마,상가를 철거할 수가 있다。소송에 진 지금의 상가 입주자들은 말하자면 10년전 억지행정의 피해자다。그들의 피해액만 해도 권리금을 합쳐 20억원은 훨씬넘을것이다。

파고다 공원과 때를 같이한 서울시의 民資사업은 樂園상가아파트와 세운상가 등이있다。간선도로부지를 차지한 이들 역시 무허가 건축、무허가 시장의 不法투성이로 건설됐고、지금은 도시계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괴물로 변했다。하지만 이들 상가에는 期限조차 없었던 땅으로、서울시는 도로 占用料를 내라는 송사나 진행할 뿐 달리 손쓸 길이 없다。이들은 뽑아 버릴 수도 없는 '앓는 이' 다。

이름 만으로도 民資사업의 1면이 환하게 보인다。民資사업에는 民資라도 끌어들인다는 실적주의의 억지가 깔려있다。

그런 억지가 不法을 빚고 禍根을 남긴다。

民資사업은 언제나 對價가 있어야 성립된다。곧이 곧대로 말하면 사업비를 웃도는 利權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그 利權이 언제나 公益과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데도 民資사업으로 실적을 올리는 開發方式이 판을 친다。그중에서도 듬직했던 실패작이 서울地下鐵의 民資건설구상이다。4천5백억원의 民資를 동원한다던 이 계획의 뒤끝은 모두가 안다。앞다투어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은 몇백억원의 손해를 본것으로 그쳤다。

이 뒤를 밟은 것이 요즘의 漢江개발계획이다。어제 있은 공사입찰에는 地下鐵에서 쓴맛을 본 업체들이 거의다 참여했다고 한다。

漢江개발사업이 흙장사라거나 환경문제를 생각한 不法은 일단 접어둔다。하지만 서울시의 民資사업이 한창이던 무렵의 실정을 취재했던 나는 그 큰 사업을 民資에 맡긴다는 말만들고도 의구심을 느꼈다。

이번에는 漢江모래에서 단맛이 나올지、그 對價로 시민이 받을것은 무엇인지, 자꾸만 「前轍」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 23회의 편리한 스케쥴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 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편명	출 발		도 착		경유지
KE011	월·수·토	13:00	화·목·일	19:20	NONSTOP
KE015	화·목·금·일	22:00	목·토·일·화	06:20	앵커리지
KE001	화·목·토·일	08:40	수·금·일·월	20:40	호노루루·東京

뉴 욕➡서울

KE007	화·목·금·일	23:00	목·토·일·화	06:50	앵커리지

호노루루➡서울

KE050	월·수·금·일	00:40	화·목·토·월	06:30	NONSTOP
KE001	화·목·토·일	13:40	수·금·일·월	20:40	東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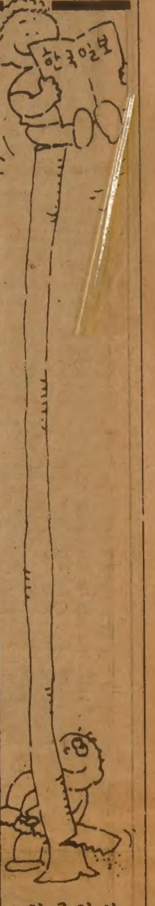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초점 196개 金메달을 다투는 영·파워의 「永遠한前進」… 9회 아시안게임

특집판



한국일보 533－2361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앞으로 5일。국민의 관심이 印度 뉴델리로 몰리고있다。精銳 한국 선수단 4백6명(본부임원43·국제심판34·경기임원49·선수2백80명)은 11일밤 뉴델리선수촌에입촌、필승의 신념으로 대회개막을 기다리고 있다。아시안 게임 21개 경기종목중 승마를 제외한 20개종목에 출전하는 한국은 금메달20개 종합성적 3위를 기본목표로 설정해놓고 日本·中共·북한·주최국 印度와 메달획득경쟁을 펼치게된다。「영원한 前進」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경기연맹(AGF)에 가입한 32개국 젊은이들이 힘과 技를 겨루는 아시아인의 스포츠제전인 동시에 서로 어울려 이해를 두텁게하고 친선을 다지는 平和의 광장이다。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을 갖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영·파워들이 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큰뜻이 있다。

印·北韓과 3位다툼…복싱등 鬪技종목에 기대
메달못잖게 86년·88년對備 이미지 浮刻 중요
日·中共의 경쟁 주목…AGF해체 OCA탄생

한국팀의 입장

『한국 젊은이의 기개를 마음껏 뉴델리에 펼쳐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이다。

이번 뉴델리 아시안 게임은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의의있는 대회이다。스포츠 세계에서 본질적으로 「승리」라는 경쟁적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종합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수있는 운영능력을 광범위하게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금메달 한두개를 더 따고 못따는 문제보다는 씩씩하고 예의바르고 스포츠맨십에투철한 인상을 외국선수단에 심어주어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밝게 투영 시키는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남북한 간의 스포츠 경쟁에서 결과만을 놓고 일희일비 하는 過敏반응역시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다。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무대를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전기(轉機)로 평가할때 너그러운 자세로 포용성을 보여야 하겠다。

이번 아시안 게임의 용광로는 日本과 中共의 메달경쟁。中共은 4년전 방콕 아시안게임때 日本과의 금메달 레이스에서 51-70의 열세를 나타냈으나 이번 뉴델리에서 日本이 독점해왔던 선두자리를 뺏으려고 벼르고 있다。

무한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中共이 日本의 독주에 어느정도 브레이크를 걸것인가 흥미롭다。아시안게임의 모체였던 AGF가 이번대회를 끝으로 해체되고 새로운 아시아 스포츠기구(OCA)가 뉴델리서 창설된다。아시아 스포츠 무대에 뉴·파워로 등장한 中東勢의 향배역시 주목거리이다。

한국은 과거 아시안게임서 막강위력을 보였던 복싱과 축구등 일부구기종목 전력이 불안정한 느낌을 주고있으나 20여개의 금메달로 日本 中共에 이어서 종합3위는 가능할것으로 선수단에서는 내다보고있다。印度는 육상 필드와 장거리에 강하며 홈그라운드의 잇점에 편승하여 25개안팎의 금메달로 종합3위를 노리고있으며 북한은 육상(마라톤·여자장거리)、복싱、체조、역도 복싱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금메달 전략에 고심하는 이유는 4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육상과 34개의 금메달이있는 수영에서 금메달이 확실한 종목이 없기때문이다。21개종목에 걸려있는 총1백96개의 금메달가운데 日本과 中共이 절반이상의 메달을 나누어갖고 나머지 메달을 놓고 한국 북한 印度 泰國등이 격전을 벌이게 된다。

한국의 금메달 기대종목은 남녀양궁 역도 레슬링 복싱 여자농구 사격 사이클 여자테니스 남자 배드민턴인데 여자농구를 비롯 몇몇종목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中共과 북한의 거센도전이 예상되지만 세계수준에올라있는 양궁은 한국이 가장 자신하는 종목의 하나이다。金永雲과 金珍浩에게 기대를 건다。

육상에서는 남녀단거리의 張在根과 車明姬、남자중거리의 金福柱에 희망을 걸고있으며 수영여자 배영서 崔允姬·允貞 자매를 주목하고있다。육상과 수영서 금메달 1~2개만 나와준다면 한국이 종합3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 변수도 작용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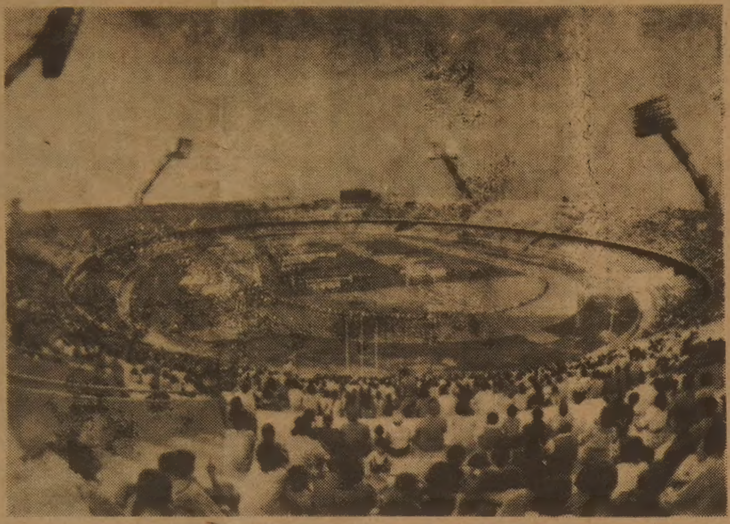
복싱 역도 레슬링등 체급투기(鬪技)는 한국의 기둥 종목。복싱에서는 라이트웰터급의 金東吉、메더급의 朴基哲、라이트 플라이급의 許永模를 금메달 후보로 꼽고있으며 레슬링의 孫甲道(주니어 플라이급) 柳寅卓(라이트급) 高鎭源(웰터급)도 유망하다。역도에서는 1백10kg급의 安智榮과 1백kg의 安孝作을 금메달후보로 꼽고있다。사격 공기소총의 朴大雲、속사권총의 朴鍾吉、스키트의 尹德夏 徐長雲、클레이부문의 金榮日에게도 희망을걸고있으며 사이클의 金柱錫 金鐵石 李鎭玉도 만만치않은 선수들이다。

여자농구는 장신中共벽을 어떻게 분쇄하느냐가 관건。지난5월 東京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서 한국이 천신만고 끝에 中共을 누른것을 감안할때 한국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골프개인전서 재일동포 金柱溢에게 기대를 걸고있는데 金의 실력을 감안할때 금메달도 가능하다。그러나 골프는 기복이 심해 안심할수는 없다。

이번대회에 남자핸드볼이 처음 채택되었는데 강적은 日本。아직 일본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나 이번이 脫아시아의 길을 열수있는 좋은 계기다。

골프 수영 여자농구 배드민턴등 위험부담률이 높은 종목을 제외한다면 확실하게 15~16개의 금메달을 바라볼수있다。그러나 금메달 15~16개로는 안심할수없다。우리가 바라는 종목에서 메달을 확실히 따주고 큰기대를 걸지않았던 종목에서 뜻밖에 금메달을 따준다면 종합3위의 목표를 달성할것으로 보인다。【金仁奎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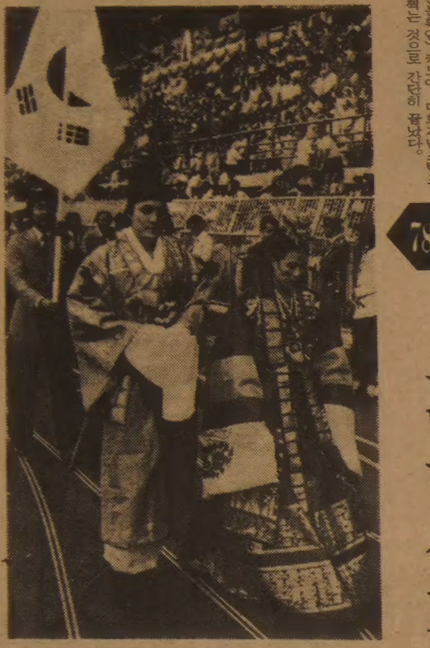


◇入場式및 공개행사 豫行연습 한창

대회개막을 앞두고 메인 스타디움(네루경기장)서 입장식및 공개행사 예행연습을 하고있다。【뉴델리發=聯合】

뉴델리 祭典 앞으로 5일

내가본 아시안게임 78년의 방콕
특별한 신축施設없이 있는 그대로



◇78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사진기자들의 인기를 모은 한복입장。사모관대의 姜萬守와 화관을 쓴 姜賢淑이 한국선수단 선두로 입장, 갈채를 받았다。

1978년 12월 방콕에서 3번째로 아시안 게임이 열렸다。개막을 한주일 앞두고 한국선수단과 보도진을 실은 KAL전세기가 방콕 돈무앙 국제공항에 도착했다。입국절차는 ID(신분확인)카드에 대회기념스탬프를 찍는 것으로 간단히 끝났다。

그러나 선수단은 공항대합실에서거의 1시간을 묶여있었다。부미폰국왕행차가 공항앞길을 지나 모든 차량이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12월8일 국립경기장 메인·스타디움에서 제8회 아시안 게임이 개막되었다。

공수병들의 오색무늬 낙하산쇼로개막행사가 시작되었다。공수병들은 땅에 내리자 로열박스의 국왕을 향해 경건한 자세로 경례했다。

경기장 로열·박스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민도(民度)의 높이와 반비례한다는듯 했다。

개막식의 가장 이채로운 행사는 고유의상의 남녀를 앞세운 참가국선수단의 입장행진이었다。터번을 두른 인도、차도르를 쓴 사우디아라비아、털가죽옷을 입은 몽고… 그가운데서도 가장 사진기자들의 인기를 모은것은 사모관대차림의 姜萬守와 족두리를쓴 姜賢淑이었다。예복차림이어서 행진에는 다소 불편한 모습이었다。

메인·스타디움을 중심으로한 보도경쟁도 대단했다。UPI、AP등 세계적인 대통신사와 나란히 日本의 共同통신이 커다란 보도본부실을확보하고 텍스크와 암실、송신실을갖추었다。

7개신문으로 편성된 한국신문공동취재단이 확보해놓은것은 선수단본부인 라자호텔의 잠자리뿐이었다。메인·스타디움에 가설된 프레스·센터 한 귀퉁이에 겸상을갖다놓고 취재를위해 공용전화에 매달려야 했고 UPI라인의 빈시간을 기다려송고해야했다。사전답사를 못해 경기장을 찾는것도 어려운 일이었다。수영의 현장취재가 거의불가능한상태에서 선수단본부로부터 趙某선수가 한국신기록을세우고도 입상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프레스·센터에 달려가 기록을 체크했으나 한국선수 이름은 없었다。책임자에게 물어 현장에서 중계되는 기록필름을 조사해보니 한국선수는 세번째 턴(회전)에서 실격되어 공식기록조차 나오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위막·스포츠·콤플렉스에서 벌어진 궁도경기서는 한국、일본、북한이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이틀째 계속된 경기서 金珍浩가 뜻밖에 개인종합우승의 전과를 올렸다。

우승소감을묻는 기자에게 金은『몰라예』『아니예』하며 눈물만 펑펑쏟았다。鄭甲杓코치가 재빨리 끼어들어 외국기자들에게 장황하게 金의 우승에 관해 설명했다。이튿날 방콕·포스트紙는『챔피언은 입을 다물고 코치 혼자 金을 대신에 인터뷰에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金珍浩는 우승에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있지않았다。궁도경기가 저녁늦게 끝나 시상식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진행됐다。우승대에 올라선 金珍浩는 내·외보도진의 요청으로 2위의 북한선수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임원들의 눈치를 살피던 북한선수가 옆으로 돌아서버렸다。

74년 테헤란대회에 이어 두번째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中共선수들은 미소와 조용한 경기매너를 보였다。

일본선수들의 화사한표정과 비교하여 한국선수들은 무뚝뚝했다。

참가국선수들은 승리 못지않게 외국선수들과 관중들에게 비쳐질 자신들의 이미지에 유의했으며 관중들역시 선수들이 풍기는 저마다 다른 인상들을 음미했다。

태국은 아시안 게임을 위해 특별히 신축한 시설이 없었다。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자는 자신감을 가진듯했다。스쿰비트대로옆에 줄지어선 포장마차、빠뽕가의 분내나는 술집들、사우나탕의 요란한 네온사인、택시의 요금흥정…。

아시안게임 관광객들은 오히려 방콕의 이러한 무질서를 즐겼다。

폐막식에 앞서 남북한간의 축구결승전이 벌어졌다。연장 공방끝에 비겨 공동우승을 차지했다。시상대에서 한국팀 주장 金鎬坤은 북한주장 김종민의 어깨를 껴안았다。남과 북의 주장을 향해 플래시가 터졌다。【方錫嶋기자】

◇코끼리 마스코트로 표시한 21개종목

제9회 아시안게임은 19일개막, 12월 4일까지 21개종목에 걸쳐 펼쳐진다。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승마 골프 핸드볼 조정등 4개종목이 채택됐으며 요트와 조정을 제외한 19개종목은 뉴델리서 열린다。

◇종목별 금메달수

종목	남	여	혼합
육상	24	16	
수영	18	16	
체조	8	6	
역도	10		
사이클	7		
궁도	2	2	
사격	22		
레슬링	10		
복싱	12		
축구	1		
농구	1	1	
배구	1	1	
하키	1	1	
핸드볼	1		
테니스	3	3	1
탁구	3	3	1
배드민턴	3	3	1
요트	4		
골프	2		
승마	4		
조정	4		

※총계：196개

◇歷代전적

개최연도 개최지	순위	金	銀	銅
1회 (1951년) 뉴델리	①일본	24	20	14
	②인도	15	18	19
	③이란	7	5	2
	④싱가포르	5	7	3
	⑤필리핀	5	5	7
	※한국불참			
2회 (1954년) 마닐라	①일본	38	36	24
	②필리핀	14	14	17
	③한국	8	6	5
	④파키스탄	5	6	2
	⑤인도	5	4	8
3회 (1958년) 東京	①일본	67	41	30
	②필리핀	8	19	21
	③한국	8	7	12
	④이란	7	14	11
	⑤자유중국	6	11	17
4회 (1962년) 자카르타	①일본	73	56	23
	②인도	10	13	10
	③인도네시아	9	12	27
	④파키스탄	8	11	9
	⑤필리핀	7	6	24
	※⑥한국	4	9	10
5회 (1966년) 방콕	①일본	78	53	33
	②한국	12	18	21
	③태국	12	14	11
	④말레이지아	7	5	6
	⑤인도	7	3	11
6회 (1970년) 방콕	①일본	74	47	23
	②한국	18	13	23
	③태국	9	17	13
	④이란	9	7	7
	⑤인도	6	9	10
7회 (1974년) 테헤란	①일본	75	49	51
	②이란	36	29	17
	③중공	33	45	28
	④한국	16	26	15
	⑤북한	15	14	17
8회 (1978년) 방콕	①일본	75	59	49
	②중공	51	54	48
	③한국	18	20	31
	④북한	15	13	15
	⑤태국	11	12	19

탁구·배드민턴·양궁등 世界覇權…하키·다이빙도 頂上級
높아진 亞洲수준 세계의 耳目집중

아시아스포츠의 경기력이 비약적인 향상을 보이면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세계의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70년대초까지만 해도 아시안게임은 낙후된 수준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한게 사실이었다。탁구、하키등 소수종목만이 세계정상수준을 보일정도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中共이 아시아스포츠무대에 등장하고、스포츠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스포츠는 치열한 경쟁과 함께 비약적인 수준향상을 이뤘다。

특히 탁구、배드민턴、체조、양궁등은 세계를장악하고있으며 하키、배구、다이빙도 세계수준이다。中共탁구의 위력은 대단하다。현재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랭킹을 보면 남녀 1위부터 5위까지가 中共선수이며 20위까지 남8、여14명이 아시아 선수이다。한국과 日本도 만만치않아 日本의 前세계챔피언 오노(小野誠治)가 10위、한국의 朴利熙가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에서는 한국의 李壽子(6위) 安海淑(13위) 金庚子(16위) 북한의 朴英順(9위) 李成淑(14위)등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배드민턴서도 中共과 인도네시아가 세계정상급으로 아시안게임은 사실상의 세계선수권대회에 손색이 없다。한국의 黃善愛와 日本의 기따나·스미꼬、인도의 아미·기아등도 배드민턴 세계수준에 올라있다。

궁도에서는 한국의 실력이 단연 돋보이고 있다。한국은 금년 7월 日本서열린 아시아·大洋洲대회에서 여자50m를제외한 전부문더블라운드에서 세계최고기록을 세워 세계최강을 과시했다。金永雲은 남자전부문에서 더블라운드 세계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中共이 자랑하는 종목은 체조。종합체조는 82년 월드컵대회서 李寧이 남자부에서 6관왕을 차지하는등 남자부 11개 타이틀중 7개를 휩쓸었다。

하키역시 印度와 파키스탄이 종주국으로 세계최고수준을 자랑하며 역도 52㎏급에서 북한의 한경시、56㎏급인상에서 中共의 우슈데가 각각 세계기록을 갖고 있다。

육상 마라톤에서 日本의 세꼬、소시게루、이또등이 2시간9분대로 세계수준에 올라있으며 높이뛰기 넓이뛰기등서도 세계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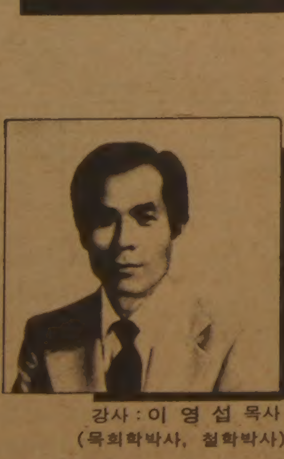
이번 뉴델리아시안게임은 이같은 아시아스포츠의 발전상을 과시하는 시범장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한인침례교회

심령대부흥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현대 교인을 위한 하늘나라의 메세지를 교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저 하오니 오셔서 피곤한 영혼이 쉼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인침례교회 담임 홍신웅 목사 드림



강사：이 영 섭 목사
(목회학박사, 철학박사)
체리힐장로교회 담임목사

부흥회 일정

●11월25일(목) 저녁 7 시30분
"현대인의 모습" 요한복음10：1－10

●11월26일(금) 저녁 7 시30분
"주께 향한 눈" 시편123편, 1－4

●11월27일(토) 저녁 7 시30분
"호렙산의 불꽃" 출애굽기 3：1－11

●11월28일(일) 새벽 6 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13：1－5

오후 2 시
"하나님의 뜻" 로마서12：1－2

저녁 7 시30분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갈라디아서 6：11－18

720 OSSINGTON AVE, AT BLOOR ST, WEST, OSSINGTON SUBWAY 에서 하차. BLOOR ST. 건너편
☎：(교회) 531－7604, (사택) 533－1377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특집판

現代史의 現場 ④

題字 原谷 金基昇

獨立門 「1897.11.20」탄생 榮辱의 風霜85년

오는 20일은 獨立門이 세워진지 85년되는 날이다. 광복 37년이지난 이제 독립기념관을 짓자는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독립문은 우리의 눈에 더욱 유심히 바라보인다.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은 껍데기뿐인 형식상의 독립이요, 정말 독립이라 말할 수 없읍니다. 독립이란 그나라 국민전체가 원하고 힘써 세워놓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이 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옛날의 수치스런 흔적을 없애 버리고 정말 실질적 독립을 소원한다는 표적으로서 이 독립문을 세우는 것이니, 우리국민 각자는 이점을 잘 생각하고 우리나라 자주독립을 위하여 더욱 분투하여야할 것입니다』

1897년11월20일 각국 공사 정부 대관및 수많은 민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독립문 준공식장에서 松齋 徐載弼선생은 이렇게 열변을토했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독립신문·독립협회·독립문·독립관등 수 많은 「독립」돌림의 기념물과 신문과 단체들은 모두 徐載弼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독립문은 한국땅에서의 이권을 놓고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던 열강들―특히 淸國의 간섭으로부터 의연히 독립하자는 민족적자각의 표상으로 세운 기념탑이다.

서재필의 준공식연설에 나오는 「옛날의 수치스런 흔적」이란 바로 迎恩門과 慕華館을 두고 하는말이다.

〈섰낫다 변낫다/연주문을 혈어라/독립문을 세여라/너먹자고 셜엿니/나먹자고 셜엿지〉

이민요는 당시부인들이 아이들을 달랠때 흥얼대던 노래인데, 연주문은 중국사신을 실어하는 뜻이 포함돼있다. 호박국이란 오랑캐胡를 상징하는것일 것이다. 이 노래속에 나오는 「연주문」은 迎恩門의 또다른이름 迎詔門의 속칭이다.

지금도 독립문앞에 서있는 2개의 돌기둥이 영은문의 주추이다. 영은문은 조선 초기에 明나라임금의 조서(詔書)나 명령을 가지고오는 사신을 맞아들이기위해만든 문으로 임금자신이 무악재까지 나가 사신을 영접했었다. 문의 이름은 처음엔 홍살문이라 했다. 그러다가 中宗때에 와서 홍살문을헐고 청기와를 엎어 迎詔門이라 개칭했으나 明의사신 薛廷寵이라는자가 明의 은혜를맞아들이는 문이라고 迎恩門이라 고치도록 떼를써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던것이다. 치욕과 수모의 상징이었다.

慕華館도 마찬가지이다. 太宗7년 지금의 金華국교자리에 처음 세운 이 집은 글자 그대로 중국을 숭모한다는 뜻으로, 明·淸 兩代동안 중국의 사신이 오면 이집에서 下馬宴이라 하여 최초의 환영연을 베풀었고, 돌아갈때는 上馬宴이라고 해서 성대한 송별연을 베풀던 곳이다.

金玉均등 선각개화파들과 함께 국정을 쇄신하려 했던 甲申개혁(정변)에 실패,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서재필의 눈에는, 이 두 건물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것들을 압도하는 거대한 민족혼의 상징물을 세우기로 결심, 자신이 창간 운영하던 독립신문을 이용하여 독립문건립운동을 시작한다. 독립신문 사설을 통해 독립문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성금을 모은다고 했다.

온國民의 誠金으로 건립

『요즈음 신문에 독립기념관 설립년 사람 명단이 실리는것처럼 당시 독립신문도 그랬지요』

延世大 韓興壽교수 (정법大)는 당시 민중의 호응도를 이렇게 말했다. 韓교수가 독립신문과독립협회보에실린 명단을 근거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성금을 낸사람은 2천여명, 성금총액은 5천8백97원19전2리였다고한다.

왕태자도 성금 1천원을 쾌척하였다. 왕실에서 독립문건립에 적극적인 태도를보이자 정부의 관리들도 참여했다. 당시 內部지방장 金重煥은 각도 관찰사와 지방관에게 공문을 보내 독립협회의 사업에 협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돈으로 慕華館을 개수해 독립관이란 현판을 달고 독립협회의 집회장소로 이용하였으며, 1896년11월21일 하오2시반에는 독립문건립 정초식이 거행되었다.

『오날 대죠션 독립협회회원들이 독립문주츳돌을 노흘터이요 독립관 디에서 오후두시반에 노흘터이요 례식과 학숙를 연셜 호며 학교학도들이 외국가를 노릭할터이요 체조를 호터이라...일천오빅만명 인구가 복을 누리고...죠션노릭는 비진학당 학원이 하고 지도는 교수 위펀셸어씨가 하고 회장의 연설은 회장안경수씨가 하고 우리나라 전정이 엇더혼 연셜은 외부대신 리완용씨가 하고...체죠는 영어학교학원이 하고 그끗히 차와 실과가 잇다더라』

독립문정초식을 알리는 건양원년 (1896) 11월21일 토요일자 독립신문의 기사원문이다.

大朝鮮獨立協會會報와 11월24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정초식기사는 독립협회회원 일반시민 각부대신 외국공사 및 연사와 귀빈들, 각학교학도등 5, 6천명이 참석, 敦義門 (서대문) 밖의 西郊에는 車騎가 구름같이 모이고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人山人海를 이루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당시로는 전대미문의 대집회였다는 것이다.

독립문의 건립구상도 그림지만 문의모양도 서재필의 안이었다. 서재필은 자서전에서 처음에는 별다른방법이 생각나지않아 영은문처럼 위에 지붕을만들고 기와를덮어 조선식건물로 세워볼까 했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서양에 다녀온 사람으로 구식건물을 지으면 남이 웃을것도 같고 그생각도 탐탁지않아 서양식으로 짓기로했으나 별다른안이 없었다. 『때마침 내가 가진 화첩중에 파리의개선문의 사진이 끼었던것이 생각나서 그모양을 확대해보았으나 너무 규모가광대하여 그규모를 축소, 모양만을 꼭같이 하기로했다』

서재필은 문의모양을 대강 스케치해보고, 당시 독일대사관에 근무하는 스위스사람이 그림으로된 설계도를 잘 그린다는 말을듣고 그에게부탁해 설계도를 얻었다.

일부기록에는 러시아인기사 사바친이 설계했다고 돼있으나, 이점에 대해 서재필은 자서전에서 『다른책에는 사바친에게 부탁했다 했으나 그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하였다.

당시 서양인들이 교회·학교·병원등 양식건물을 많이 짓고있었는데 이들의 지도를 받아가며 한국기술자인 목수 沈宜碩이 공사를 담당했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독립문은 우리힘으로세워진 최초의 양식건물이었다.

3층건물높이의 높이에 불과하지만 당시로는 경이적인 건물로 서울의 새로운 명물이되었다. 건물의 외양보다는, 2천3백12개의 돌을 깍아 쌓은것이 중국으로부터의 수백년예속관계를 청산하는 민족의지와 정성의 상징으로 평가되어 독립문건립의 뜻은 더욱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한때 이 문을 헐어버리려했었다. 서재필의 후손인 忠南大 徐明源총장은 『그때 혁거일부로 독립된 사람들이 모두 큰 구렁이가 독립문에서 나왔다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결국 일제는 민족의 저항을 겁내 혁거계획을 백지화하였다.

그뒤 1934년 도로사업을 하면서 무악재에 있던 迎恩門의 돌기둥을 독립문앞으로 옮겨세웠다. 그때도 민중은 치욕의 상징을 독립문정면에 갖다 세우는 악랄한 처사에 반발했다고 한다.

3·1운동때에는 밤을 틈타 누군가 독립문에 태극기를 그려놓고, 돌에 새겨진 태극에 붉고 푸른 색칠을 해놓곤 했었다. 다음날 경찰이 색칠을 지워버리면 그다음날 아침또 칠해지곤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일제에 대한 숨은 저항운동이었던 것이다.

이토록 근세이래 우리민족의 긍지로 기려졌던 독립문은 서울의 옛모습과 자리를 잃어버리고 지금은 건물속에 가려져 초라한 자태를 하고있다.

지난 79년 城山大路건설로 독립문머리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게 되자, 서울시는 제자리에서 서북쪽으로 80m 떨어진 義州路길가로 문을 옮겨세운것이다.

민족 자존심의 상징인 史蹟 (제32호) 을 손대서는 안된다는 강한여론을 무시하고 서울시가 고가차도를 건설, 독립문의 「몰골」이 한심스럽게 되자 차라리 옮기는 것이 낫다는 대안을 좇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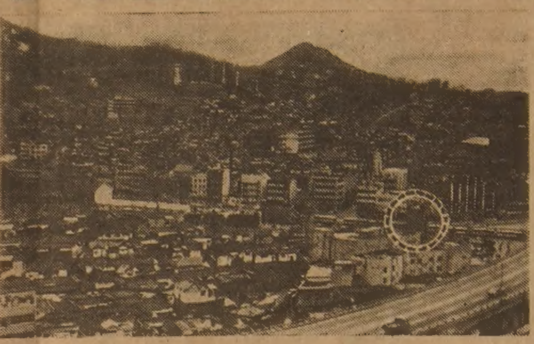
이문을 세운 松齋 徐載弼선생은 그기구한 역사적 운명때문에 한국과 미국땅에 후손을 남긴채, 51년 1월5일 미국 필라델피아교외에서 84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 그곳에 뼈를 묻었다.

甲申개혁실패로 그가 大逆之賊으로 몰리자 그의부인과 형제2명등 가족들은 본의아닌 죽음을 당했다. 그의 망명후 딸 하나 아들 하나 단둘뿐이었던 혈육은 돌보는 손이없어 요절했고, 미국땅에서 재혼한 미국인부인과의 사이에 딸들을 두었다. 장녀 스테폰·보이드女史는 지난봄 他界했고 유일한혈육인 둘째딸 뮤리엘·제이슨여사(83)가 지금 필라델피아에 살고있을 뿐이다.

본부인과의 혈족으로는 서재필의 손아래동생(載昌)이 甲申개혁후 처형당한뒤 양자로 들어간 濱錫씨의 5남2녀와, 현(載春)의 손 4남2녀가 있다.

從孫 徐希源씨(61·梨大교수·법학박사)에 의하면 종손 冰源씨(독립유공자협회), 昌源씨(사업)·晨源씨(다우·케미컬연구소부소장)는 서울에 살고있으며, 宗源씨(의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업중이고, 載春의 후손으로는 東成·東榮·東仁·東明씨등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활동중이라고 한다.

【文昌宰기자】



◇건립직후의 독립문 일대풍경㊤. 지금의 金華터널쪽에서 본 모습인데 慕華館의 모습과 그 앞의 초가들이 낯설다. ㊦같은곳에서 본 지금의 獨立門일대. 빌딩숲과 주택군에 파묻혀 독립문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徐載弼박사

外勢배척…民族魂의 상징

79년 城山大路건설로 現位置 밀려나

花崗岩조각마다 獨立意志가

皇太子도 兒女子도 함께 참여한 民族合意의 結晶

柳永烈 〈崇田大교수〉

1896년 2월의 俄館播遷을 계기로 金弘集의 제3차 친일내각이 무너지고 수구파와 구미파의 연립정권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日本의 약탈세력은 일단 견제되었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침탈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집권층의 外勢依存的 자세와 보수반동적 경향으로 정국은 혼미를 거듭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甲申政變의 주동자로 美國에 망명했다가 11년만에 귀국한 徐載弼을중심으로 하여, 自由와 民主思想으로 민중을 계몽하여 단합된 民衆의 힘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목적에서 1896년 7월에 獨立協會가 창립되었다. 앞서 이해 4월에 徐載弼에 의해 창간된 독립신문은 지식인과 민중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 독립협회창립의 원동력이 되었다.

獨立協會는 중국에대한 事大의 상징인 迎恩門의 자리에 獨立門을 세우고,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던 慕華館을개수하여 獨立館을 만들며, 그 일대를 시민의 휴식과 강연을 위한 獨立公園으로 조성하려는 독립기념물의 건립을 창립사업으로 하여 발족되었다. 서재필이 그 자서전에서 「우리가 남의 노예라는 표인 수치스러운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나라가 노예의 굴레를 벗어 버리고 완전히 자주독립국이되었다는 기념으로 새로이 독립문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듯이 獨立門은 自主獨立國의 紀念物로 건립된것이다.

이 독립문은 온 국민의 誠金으로 건립되었다. 「국가의 자주독립은 정부만의 경사가 아니고 전국 인민의 경사이므로 독립문은 「전국 인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생각에서였다.

따라서 官人層·市民層·農民層·지식인·학생등 시정의 아녀자들의 푼돈으로부터 황태자의 하사금에 이르기까지 國民각계각층의 擧族的인식으로 독립문이 완공된 것이다. 獨立門建立사업은 범국민적인 모금운동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마음속에 자주독립의 의지를심어주었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自主獨立의 기치아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國民的一體意를 조성하는데 기여했을것이다. 따라서 獨立門은 國民統合의 상징물이라 할수있겠다.

그리고 독립문의건립은 國民의 자발적인 自主獨立의선포였다고 하겠다. 中國과의 전통적인 事大關係를 부인하고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최초로 명시한것은 江華島條約에서였다. 그후 조미수호조약과 천진조약, 시모노세끼조약에서도 조선의 독립국임이 거듭 확인되었다.

그리고 甲午改革중에는 국왕이 종묘에 나아가 獨立誓告文을 바치고 洪範14條의첫머리에서 自主獨立을 선포했다. 이것은 朝鮮의國王이 自主獨立을 中外에 선언한 최초의 성명이었다. 이와 비교해볼때, 민간단체인 독립협회가 官民을 포함한 범국민적인 성금으로 獨立門을 건립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있는 국민적 合意에 의한자주독립의선포였다고할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문은단순히 獨立紀念物을 넘어서서 汎國民的인 獨立意志의 상징물이라 하겠다.

독립협회는 온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獨立門을 비롯한 독립기념물 건립을 창립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창립되어 民衆團體로성장했다.

지난날 甲申政變과 甲午改革이 소수개화지식층의 주도아래 민중과 단절되고 외세의존적인 開化運動으로 흐른것과는 대조적으로 獨立協會의 開化運動은 처음부터 끝까지 民衆을 배경으로 民衆運動으로 일관되었다.

「그러므로 獨立協會의 독립문건립사업은 우리역사상 처음으로 開化運動과 民衆을결합시켜 민중적 개화운동,자주적 근대화운동의 단서를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獨立門은 民衆的 自主開化의 里程標라 할만한 것이다.

독립문은 영구보존이 가능한 花崗岩의 견고한 건축물이다. 獨立新聞이 「後世라도 내외국민들이 이 독립문과독립공원지를 보면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영원불멸의표를 했다고 할 것 이라 기록했듯이, 獨立門의 건립은 당대에 독립의지를 내외에 선포한것에 그치지않고 대대로 우리민족의 가슴속에 獨立精神을 계승시켜 어떠한외세의 압제와 굴욕으로부터도 독립하려는 강한의욕과 민족의식을 각성시켜 영원히 自主獨立의國家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獨立門은 3·1독립운동과 그후의 民族獨立運動에서 애국심과 독립의지를 고취시키는 유산이 되었다. 따라서 獨立門은 우리의 統一民族國家의 영원한 자주독립의 상징이 되어야겠다.

요컨대 독립문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자주적 근대화운동을전개했던 獨立協會의 창립사업으로 온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自主獨立의 기념물이다. 또한 獨立門은 국민통합의 상징물이요, 국민적 獨立意志의 표상이며, 民衆的 자주개화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그러고 내일에 우리 통일민족국가의 영원한 자주독립의 기념탑이 되어야 할것이다.

독립신문 (영문판) 은 1897년 12월30일자에서 독립문공사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논평하고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관앞에 獨立門의 건축을 완공했다. 이 청아하게 보이는 白色花崗岩門은 조용히 서 있으나, 독립협회 회원들의 거대한愛國主義의 훌륭한 정신과정력을 잘나타내고있다.독립문은 한국인의 進步와愛國心의 가장 뚜렷한 징표의 하나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67>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㉞

『웬 수선이냐?』

수지는 점잖게 눈살을 살짝 찌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부엌쪽에서 조그만 여자가 공처럼 굴러나왔다.

그 여자는 꽃무늬가 있는 천으로 누빈 버선을 신고 있었고, 담요처럼 두꺼운 천으로 고쟁이처럼 만든 바지와 복실 복실한 털이 군데군데 뭉친 세타를 입고 있었다. 옷이 전체적으로 커서 그여자의 몸으로부터 겉돌고 있었는데도 그 여자가 작고 몹시 말랐다는건 금방 알아볼수가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작고 어린애처럼 앳된 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주름사이론 쪼글쪼글주름져있었고, 병색(病色)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윤기도 숱도 없는 머리칼은 바랜 것처럼 누릇누릇한 빛깔로 가까스로 작은 머리통을 감싸고있었다. 그 여자는 수지를 똑바로 보지못하고 손을 쉴새없이 부비고 있었고 입가가 고통스럽게 씰룩거리고 있었다. 툭 건드리기만해도 앙하고 울어버릴 것처럼 그여자의 앳된 티가 두드러졌다.

『유기사 부인이래요』

식모애가 두 사람의 말 없는 대면을 보다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수지는 반쯤 벗다만 친칠라 코트를 부랴부랴 여몄다. 친칠라 코트속엔 오늘 친구들로부터 찬사와 시기를 한 몸에 모은 진홍바탕에 큰 해바라기 꽃무늬가 놓인 수직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기욱이 해외여행때사온것으로 빨강과 노랑이라는 원색의 대비가 깜짝 놀라도록 세련돼 외제는 어디가달라도 다르다는 찬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였다. 수지가 그 여자를 보고 한 일은 겨우 그 아름다운 옷을 감추는 일이었다. 수지 역시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렸으나 아무말도 하진 않았다.

수지는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은채 눈으로 식모애를 찾았다. 위로 받고 싶어서였다. 목구멍이 타고 갈라지는 것처럼 위로가 목말랐다.

그러나 수다스럽고 오지랖넓은 식모애는 입을 다물고 한구석에 올차려붙어있었다. 그리고 아둔한 눈으로 두 여자를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들보듯 바라다보았다.

식모애에게 수지의 생활은 여자로 태어나서 단 하루라도 그만큼만 살다 죽으면 여한이 없을 것같은 꿈의 생활이었다. 그러면서도 언제고 수지가 안입을땐 마음대로 만져보면서 그 그지없이 쾌적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즐길수있는 밍크나 친칠라코트의 감촉처럼 친근하고도 만만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수지를 우러르면서도 얕잡고 있었다. 그녀는 수지의 빛나는 하루를 자기의 뾰루퉁한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엉망으로 흐려놓을수 있다는걸 알고있었다. 자기의 부재는 곧 수지네 생활의 질서의 부재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수지네 금싸라기 같은 형제의 까다로운 입맛이 자신의 음식솜씨에 얼마나 철저히 길들여져 있나도 알고있었다. 식모애의 이런 자신감은 수지네 크나큰 살림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다는 묘한 우월감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대외적으로 수지보다 더욱 거만하게 더욱 품위있게 굴기를 즐겼다.

그런 식모애의 눈에 뭔가 아쉰 소리를 하러왔음에 틀림이 없는 기사 여편네쯤은 발밑에 낀 때만도 못돼 보이는건 당연했다.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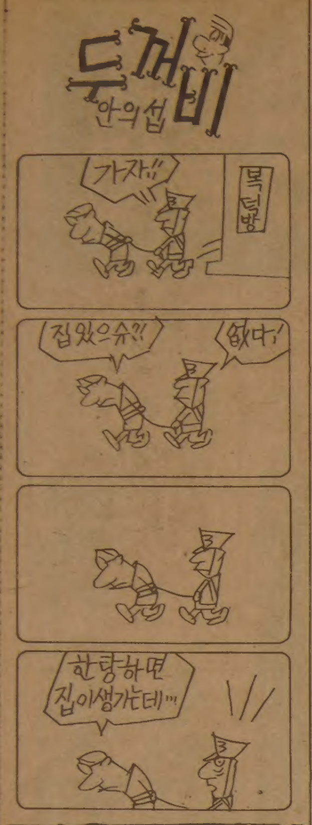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밤9시 기관모임 3:20 주일저녁 4:2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8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3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266-8820(R) 694-9691(교
제일장로교회	김웅술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7:30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필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45-4980 전화설교
천주교회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인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 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5만달러든 가방 盜難

在美동포 金浦공항서 搭乘수속 받다

13일하오 3시10분께 金浦국제공항2층 대합실에서 재미동포 安永太씨(40)가 미화5만달러가든 가방을도난당해 공항경비대가 수사에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푸수틴시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安씨는 이날하오4시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하는 KAL 01편에 탑승하기위해 대한항공 체킹·카운터에서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3개의 여행가방 가운데 중형의 검은색 가방(삼소나이트)을 잃어버렸다는것.

安씨는 이날 휴대품에대한 보안검색을 마치고 체킹·카운터앞에 줄을서있다가 앞사람의 수속이끝난뒤 자신이 수속을 밟으려고 가방을확인하던중 옆에놓았던 가방이감쪽같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安씨는 10년전 미국에 이민, 그동안 식당을 경영하며 절약해 모은돈 6만2천달러를 갖고 지난10월28일 입국, 사업을물색하다 여의치않아 1만2천달러만 쓰고 나머지 5만달러를 다시 갖고 가려던 길이었다.

도난당한 安씨의 가방에는 1백달러짜리 지폐 3만달러와 20달러·50달러짜리 지폐 2만달러가 헌옷가지와 함께 들어있었다.

이사고로 安씨는 출국하지 못했는데 입국때는 갖고온외화를 신고했었다.

경찰은 이 비행기 탑승자 검색때 5만달러가 적발된사실이 없어 일단 출국전의 구내도난 사건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다른 수속자가 자기가방으로 잘못알고갖고갔을 가능성도 있다고보고 安씨 바로 앞에서 수속을 밟은 모회사 회장의 수속을 대신해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중이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北傀, 회유와 협박 同胞착취"

전향간첩 梁達珍씨회견

祖國 참모습 보고 번민

◇전향간첩 梁達珍씨가 재일 조총련의 대남공작실태를 폭로하고있다.

고정간첩의 조직점검임무를 띠고 재일동포모국방문단을 가장, 입국했다가 검거된 후 전향한 梁達珍씨(65·식당 漢江苑주인·東京都荒川區町屋2-7-14)가 13일 상오10시 서울中區獎忠洞 이북5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괴공작원들의협박과 회유속에서 금품을뜯겨야하는 조총련산하 재일동포들의 생활상을 폭로했다.

梁씨는 이날 회견에서 『북괴는 거류민단소속 재일동포들이 모국방문단으로 조국대한을 다녀가면서 많은 조총련계가 동요를 일으키자 이른바 「祖訪團」이란 것을 만들어 「1인2회 방문운동」을 벌이며 북한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들리는 말로는 북한을 찾아간 재일동포들이 북괴의 폐쇄사회에 자유주의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대한 梁씨의 답변요지는 다음과같다.

—자유대한으로 전향한 동기는.

▲20년전 일본에 밀항한 남 梁基(39)를 북송시키고 나서 아들의 신변이 우려돼 조총련에 가입했고, 재일 대남 공작책인 金振聲의 사주에따라 간첩활동을 하기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아들이 편지를 쓸때마다 『시계 10개, 양복지, 라면, 결핵약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어서 『북조선은 지상의낙원』이란 그들의 선전이 거짓임을 집작하고 번민해왔다.

그후 金으로부터 『고정간첩 조직점검을 위해 재일거류민단의 모국방문단으로 위장, 한국을 다녀오라』는 지령을 받고 36년만에 고향 濟州道를 찾아보니 그곳은 국제관광도시로 변해있었고 발전된 조국의 이모저모를 보고 전향을 결심했다.

—어떤 간첩활동을 했나.

▲나는 일본에 밀항한 사람들, 자립생활기반이없는 층을 포섭하여 金振聲에넘기며 그밖에 조총련계 동포들을상대로 모금을 벌이는 것이었다.

포섭된 교포들은 북괴의공작지도선인 萬景峰호에 까지 데려가 공작지도원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이들을 포섭할때 밀항자에게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했고 유학생에게는 학비조달로 환심을샀으며 여행자에게는 취업알선과 장기체류를 위한 위장결혼 알선, 외국인 등록증 변조등을 미끼로삼아 포섭했다.

—조총련의 북송모금은.

▲조총련의 북송모금은 그 종류가 헤아릴수 없이많다. 金日成생일선물자금, 조선인학교운영자금, 북괴 예술단 일본방문공연자금, 신축건물자금, 중앙간부 여연만찬자금, 기타 갖가지 명목을 붙여 거둔다.

이 모금들은 순리적인권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입이란 이름으로 빌려가 거둬간 뒤에 갚는법이 없다.

또 관리책들은 요구하는 돈을 내지않는 교포에게는 온갖 압박과 무고로 편히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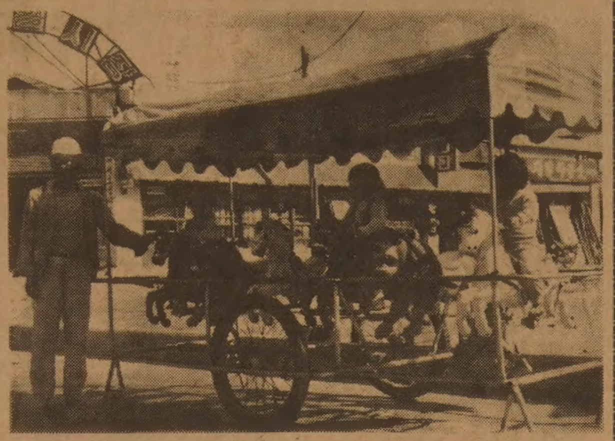
—祖訪團이란 이름의 북한 방문실태는.

▲북괴는 조총련 중앙간부와 거액기부금을 내는자들을 특별방북이라하여 비행기편으로 북경을 거쳐 방북(訪北)케하고 그밖에 조총련의 심사를 받은뒤 여비 50만엔을 내는사람은 10·20일 또는 30일간, 15만엔을 내면 1일정도 북한방문을 허가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북한에 가면 개인적인 자유행동은 규제받고 그들이 보여주는곳만 볼수밖에 없으며 가족면회도 면회소에서 감시자가 보는 앞에서 해야한다.

「木馬할아버지」가 늘고있다

골목대장들의 다정한 벗



◇童心을 싣고 서울변두리시장공터를 중심으로 할아버지들의 木馬수레가 인기를 끌고있다. 스스로 일거리를 마련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반가운 사회현상이기도하다.

「이동託兒所」 날로人氣

老人들엔 새 일거리로

「木馬할아버지」가 늘고 있다. 수레위에 동물마네킹을 가설, 시장주변의 공터나 주택가골목길을누비며 코흘리개들을 손님으로태워주는 할아버지들의 신종영업이다.

김장철에 일손이바쁜 주부들에게는 어린이들의「움직이는탁아소」로 헐값에 봉사를 해주는셈이기도해서 인기가 높다. 지방의 소도읍에서나 흔히 볼수있었던 木馬수레가 서울에서도 이처럼 각광을받는것은 노년인구의 새로운 일거리개발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핵가족화현상으로 인해 단절되가는 노유(老幼)의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도 되고있다.

등을 상대로 장기간 흥행을 벌였던 전과 관련지어볼때 木馬수레의 인기는 향수와추억이 빈약한 도시민들에게새로운서정으로 다가서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道峰區水踰洞405의 5 北部시장앞공터엔 매일 5~6대의 木馬수레가 시간을 맞춰 지나간다. 상오10시께 앰프를통해 「어린이행진곡」「산토끼」등 동요가 흘러나오면 1백원짜리 동전을든 4~5세의 코흘리개들이 쪼르르 몰려든다.

李씨는 북덕방이 머이상할 마찬가지 ... 아버지들의 전유물이 못되고 경로당도 따분해 木馬수레를 끌고 주택가의 어린이들을찾아나서는 할아버지들이 늘고 있다고 전해준다.

泰陵 경찰서앞의 李漢昌 할아버지(70·서울 道峰區 孔陵洞6—1)는 적금했던 30만원을찾아 보름전 이일을 시작했는데 『벌이는 3천원 밖에 안되지만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했다.

木馬수레의 값은 10분에 1백원으로 보통 하루 1백명을 태우는데 할아버지들의 수입은 5천원~1만원까지 올리는 경우도있다.

람이 있지만 주부나 어린이들은 구수하게 옛날얘기도들려주고 자상한 할아버지들의 木馬를 더 좋아한다.

목마수레가게도 이런수요때문에 장사가 잘돼 中區黃鶴洞 中央시장주위에 10여곳이 생겼고 淸凉里, 永登浦등에도 여러곳 있다. 中央시장 대리어카 앞은 『하루 10대가 팔린날도있다』고말했다.

고객은 거의 노인이고 간혹 장애자도 있다는것. 자녀들이 직접 모시고와 木馬수레를 사드리는 경우도 많다.

木馬6개짜리 1개가 25만원, 부드러운 마네킹 수레값은 선이고 또 따로한 플래스틱제는 10만원선이다.

할아버지들의 木馬수레는 노인들의 일거리를 적극개발하는 사회의 배려가 부족한 현실에서 바람직한 직종이 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3.9%인 1백50만명으로 해마다 노년인구가 늘고있다. 그러나 경로헌장·노인복지법등은 제정됐으나 아직도 경로마당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으며 인구조사가 끝나는 연령이후에나 노인들의 취업할때가 어렵다.

【徐廷淑기자】

大德甲川에 황새慶事

세계적 稀貴鳥…10여마리 떼지어와

【大田】충남大德郡九則面鳳山里와 新灘津邑文坪里 사이를 흐르는 甲川에서 멸종위기에 있는것으로 알려진 황새가 11마리나 날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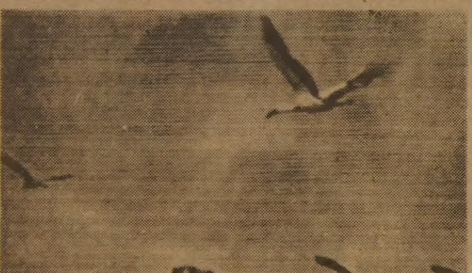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甲川주변의 鳳山里 白普哲씨(29)등 5명과 松江里주민 20여명, 목격자 金千奭씨(20·충남大德郡九則面田民里2구)등에 의해 밝혀졌다.

황새를 처음 발견한 金씨에 의하면 지난9일 하오5시께 鳳山里와 신구교다리위 40여미터 하늘에서 날아가는 큰새 한마리가 다리우측 3백m지점에서 발견돼 유심히 살펴보니 책에서본 황새와 비슷했다고 말하면서 『9일에 이어 10일상오10시께 같은 장소에서 또 발견돼 두번째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金씨는 또 『황새는 수심50㎝~1m의 물속에 있는 새끼붕어와 미꾸라지등 먹이를 쪼아먹고 있는것 같았으며 가끔 물밖으로 나와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다』면서 『서있을 때의 키는 1m가량으로 보였고 날아갈 때는 날개끝의 반가량이 검은 색깔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새가 찾아온 甲川은 錦江상류로 2㎞쯤 떨어진 錦江지류로 새끼붕어와 미꾸라지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나 大田과 儒城등에서 나오는 도시폐수로 오염돼 있어 주민들이 고기를 전혀 잡지 않는 곳인데 하천폭은 2백m가량이고 최근 비가오지않아 물이 흐르는 곳은 30여m밖에 되지 않는다.

이소식을 들은 鳳山里마을 주민 吳德鎭씨(43)는 『이곳에 매년 10월께면 철새 청둥오리등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황새가 날아왔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면서 『마을의 경사』라고 즐거워했다.



◇우리나라에 단1마리밖에 없던 황새가 40년만에 충남 大德郡九則面 甲川하류에 무리지어 날아왔다.

投機복덕방 5명拘束

속보=서울江南區 주공 開浦1차아파트 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3일 大宇부동산 공동대표 申泰珍씨(28)와 金潤吉씨(29)등 2명을 사문서위조·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장안복덕방대표 申敏錫씨(32) 靑華개발대표 金三洙씨(37) 영진개발대표 朴承旭씨(40)등 3명을 소개영업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大宇부동산 공동대표인 申씨와 金씨는 무주택자명의로 선매청약부금에 가입한뒤 통장을 전매해 왔다는 것이다.

申씨는 또 구속된 장안복덕방대표 申씨 등과 6월이후 開浦1차 아파트 11평형 12채를 1채에 매매토록 알선했다는 것.

국보급 金銅冠 발굴

嶺南大 조사단

慶山 林堂洞 고분서…鳥翼型 冠飾도

【慶山】경북慶山郡慶山邑林堂洞 고분발굴조사단(단장 鄭永和교수)은 13일상오 7호고분 3개의 석실에서 국보급 금동관1점과 금동제 날개모양(鳥翼型)의 冠飾 1점등을 발굴했다.

발굴단은 이날 깊이 2m 정도의 석실북벽으로부터 50㎝지점 석실바닥에서 높이 23㎝ 지름25㎝가량의 완전한 형태의 금동관 1점과 높이 30㎝의 금동제 조익형관식 1점을 찾아냈다.

이 금동관은 조금도 파손되지 않은채 원형을 그대로 갖추고있고 도금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었다.

관의 모양은 너비5㎝가량의 띠모양으로 둥글고 앞에는 높이 20㎝정도의 입식(立飾)이 세워져 있었다.

이 입식은 관의 띠를 아랫변으로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삼각형의 중앙에 둥이 세워진형태였다. 발굴단은 또 금동관 바로옆에서 50여개 구슬모양의 순금제 수식(垂飾)과 관수식끝에달린 1점도 찾아냈다. 【鄭】

포근한 休日

일요일인 14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밤한때 비가내리겠으나 기온은 최저 4도에서 17도정도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되겠다고 중앙기상대는 예보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교적 맑던 우리나라날씨는 한반도가 점차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전면에 들게됨에 따라 14일 하오부터 차차 흐려지고 밤한때 비가 내리겠다는것. 이날 서울은 최저6도 최고16도, 大田5도~17도, 春川4도~16도, 光州10도~14도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몸값 1천만원」

心臟病소녀 구한 辛笑嵓법사

익명의 信者가 선뜻…"이게 참善行"

서울城北區貞陵4洞 三峰寺의 辛笑嵓법사(46·사진)는 얼마전 방안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발견하고 깜짝놀랐다. 그렇게 갈망하던 돈이었지만 막상 巨金을 마주대하고 보니 얼떨떨 하였다.

『누가 보냈다』거나 『어떻게 써달라』는 꼬리도 붙어있지않았다.

辛법사는 그 며칠전 방송뉴스를 듣다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심장병환자 張子양(16·대일여상2년)의 애달픈 호소가 흘러나왔다.

三峰寺에서 貞陵 큰길까지 1.3㎞를 달리다보니 어느사이 都心속에 들어왔다. 허둥지둥 永登浦區文來洞 張양집까지 한달음에 가 그날밤으로 張양을 서울大병원에 입원시켰다.

張양을 무작정 입원시킨 辛법사는 이튿날부터 서울시내 각 종합병원을 돌아다녔다. 『내몸을 실험용으로 사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러나 사주는 병원은 없었다.

실망에 차있던 辛법사의 모습을 보고 신도들이 그 이유를 캐물었다. 張양의 수술비 때문이라는 대답이 어렵게 나왔다.

그런뒤 며칠후 辛법사의 방에서 현금 1천만원이 발견된것. 수술비를 지불하고도 남을 거액이었다.

張양을 살리려는 辛법사의 뜻을 어느신도가 사주었던 것이었다. 신도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몸을 팔지말고 捨身하라』는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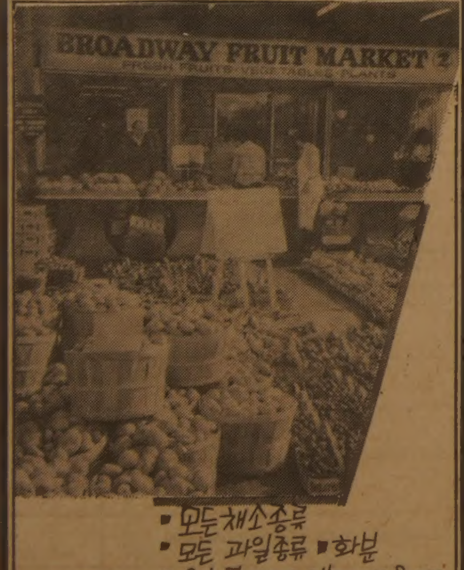
張양은 수술을 무사히 받고 며칠전 퇴원했다.

辛법사의 고향은 부산. 24살때출가, 불교철학 석사과정까지 밟고 한때 조계종단의 간부로 활약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승려는 아니다. 80년10월 위병과 척추병이 생겨 『7개월밖에 살지못한다』는 의사의 마지막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三峰寺에 칩거하며 기도와 수행을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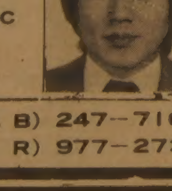
『익명의 신도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이죠. 선행을 하고도 이름을감추는 그신도는 진짜 돈을 쓸줄아는 사람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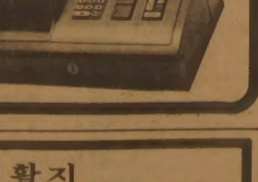
아파트투기에 얼룩졌던 복부인들이 숨어다니는 어느날 그는 그렇게 말하였다.

(상보는 16일발매 週刊한국에) 【金京姬기자】



▪모든채소종류
▪모든 과일종류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 : 465—8167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곽 덕열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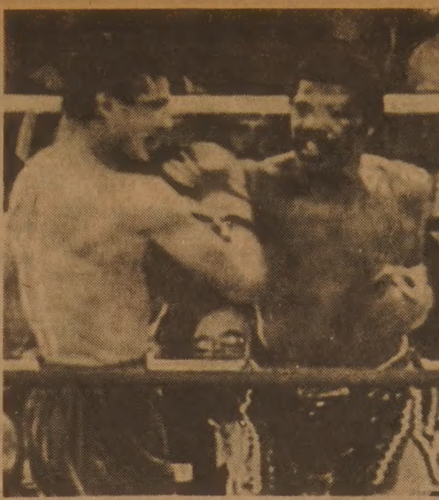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 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3불(우송료포함)
구독신청 · 한국일보사
533-2361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아르게요、14회 KO敗

強펀치 14개에 「4체급王」 좌절
프라이어、32연승 타이틀 방어

WBA J웰터級



◇신화를 좌절시킨 프라이어 결정타 14라운드에서 챔피언 프라이어(右)가 아르게요의 안면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아르게요는 캔버스에 쓰러져 3분동안 일어나지 못했다。【MBC·TV중계찍음】

【마이애미13日=聯合】 프로복싱사상 최초로 4체급챔피언을 노리던 알렉시스·아르게요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13일 낮(한국시간) 마이애미 오린지·볼구장 특설링에서 벌어진 WBA주니어웰터급 타이틀전에서 챔피언 아론·프라이어(27·미국)는 WBC라이트급 챔피언인 도전자 알렉시스·아르게요(30·니카라과)를 14회중반에 14개의 강펀치로 난타, 1분6초만에 KO승을 거두고 타이틀 6차방어에 성공했다.

프라이어는 이로써 프로데뷔이래 32연승, 30KO승의 빛나는 기록을 세웠다.

68년 프로에 데뷔한 아르게요는 선수생활 처음으로 KO패당했다.

이번 대전서 프라이어는 1백60만달러(약12억원)를, 아르게요는 1백50만달러를 각각 받았다.

양선수는 탐색전도없이 1라운드초반부터 격렬한 난타전을 전개, 관중들을 열광시켰다.

대전이 중반을 넘어서면 아르게요가 절대 우세할것이라는 예상을깨고 투지의 프라이어는 변칙공세로 거세게 아르게요를 밀어붙여 14라운드서 폭발적인連打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프라이어의 힘이 아르게요의 노련한 기술을 압도한 한판이었다.

아르게요는 초반부터 프라이어의 변칙공세에 리듬을잃고 고전하면서도 때때로 정확한 스트레이트 카운터펀치를 상대의안면에 적중, 역전 KO승찬스를 잡았으나 지나친 몸조심으로 후속타를 연결시키지못하고 열세에 빠졌다. 아르게요는 6라운드서 왼쪽 눈언저리를 찢겨 더욱 불리했다.

의식잃고 쓰러진 아르게요 3分만에 일어나 병원直行

◆…14회 1분6초만에 링에 쓰러진 아르게요는 의식을 잃고 캔버스에 누운채 산소흡입을 받았는데 3분여만에 겨우 일어나 앉았다. 아르게요는 40분후 자가용비행기로 병원에 옮겨져 검진을 받았다. 아르게요는 머리에 붕대를 감았는데 주최측이 제공한 앰뷸런스를 거부하고 매니저와함께 비행기로 병원으로 향했다.

13회까지 점수도 프라이어가 우세

◆…14회에 아르게요가 쓰러지기까지 주심 크리스토둘루(南阿)와 부심 오브슨(미국)은 프라이어에 3점, 부심 모리라·전(일본)은 아르게요의 2점우세를 채점하고 있었다.

아르게요는 14·15회에서 프라이어를 KO시키지않는한 이길수 없었다.

이기고서는 겸손 큰소리친 프라이어

◆…프라이어는 경기전「이 경기가 끝나면 나야말로 훌륭한 재능과 힘을가진 위대한챔피언이라는 것을 복싱계가 인정하게될것」이라며 승리를 호언장담했는데 정작경기가 끝나자「좋은 경험이 됐다」며 겸손한 표정.

프라이어는『아르게요는 마치 킹콩과 같았다. 이제까지 싸운선수중 가장힘든 상대였다. 아르게요도 나만큼 큰심장을 가졌다』고 소감을 피력. 아르게요는 경기후 기자회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암스트롱도 관전

◆…대전이 벌어진 슈퍼볼 경기장에는 아르게요와 같이 4체급제패에 도전했다 실패한 헨리·암스트롱도 나와 관전.

1938년 페더, 라이트, 웰터급등 3체급의 왕좌를 차지, 유일하게 3체급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했던 암스트롱은 41년3월 미들급의 세페리노·가르시아에 도전했으나 무승부가돼 4체급석권에 실패했었다.

레너드, 해설자로

◆…이날 링사이드에는 지난9일 부동의 웰터급타이틀을 내놓고 은퇴했던 슈거·레이·레너드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는 이날 유선TV(HBO)의 중계해설을 맡았다.

데이비스 판정승

◆…76년 올림픽 金메달리스트 하워드·데이비스는 이날 10라운드 오픈경기서 前WBA 라이트급 챔피언 클라우드·노엘을 심판 전원일치 판정으로 물리쳤다. 데이비스는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프라이어를 물리치고 미국대표가 되었었다. 【이상外信綜合】

人間풍차 아론·프라이어 76년 프로전향、無敗기록

1955년 10월20일생. 고향신시내티. 아마전적 204승16패.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미국 대표선발전서 하워드·데이비스에 패한후 프로전향을 선언, 데뷔전서 2회KO승을 거둔후 KO행진을 계속했다. 80년8월2일 안토니오·세르반테스를 물리치고 WBA 주니어웰터급 王座에 올랐다. 이경기서 1회 녹다운됐으나 4회에 역전KO승을 거두었다. 13일 현재 6차방어에 성공. 역대 주니어 웰터급 세계챔피언가운데 가장 높은 KO율을 마크한 선수. 5경기를 1회 KO로 이끈 강타자이다. 별명은 매(HAWK), 인간풍차, 신시내티 폭풍등 다채롭다.

北韓、15種目 2백95명

아시안게임 東獨서 훈련받은 수영 첫출전

【뉴델리=韓國新聞共同取材團】 제9회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의 규모는 이참선단장을 비롯한 15개종목 임원 81명, 선수2백14명등 2백95명으로 밝혀졌다.

북한선수단의 임원은 경기임원 34명, 심판11명, 마사지사 5명, 의사4명, 요리사2명, 체조피아니스트 1명등으로 짜여졌다.

북한의 유명선수로는 김옥선(육상장거리)·소길산(사격)·허봉철(역도)·정조웅(복싱)·이종현·손창식(이상마라톤)·김길일·황삼해·나봉기·안창남(이상 축구)등인데 북한은 처음으로 수영 경영부문에 남녀선수를 출전시키고 있다.

이들 수영선수들은 수영강국 東獨에서 장기간 훈련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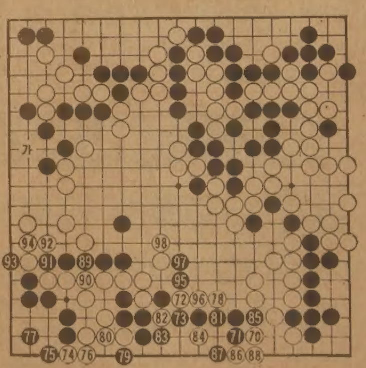
북한 최연소 선수는 여자 체조의 최명희로 만15세이고 사격의 홍순환은 만53세로 가장 나이가 많다.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10譜 170~198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澈
黑(7段) 河燦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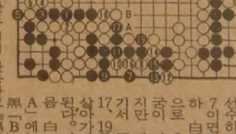
黑 대마 一瞬에 陷沒



白70의 선제공격으로 막바지 공방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싸움은 白98에서 어이없이 종결되었다. 하변黑대마가 꼼짝 못하고 전멸한 것이다.

물론 河7단의 공연한 강수와 착각이 곧장 참패에 직결된 것이다. 첫째는 黑73. 이 수로 78자리에 호수했으면 안전한것을 너무 유망하다고 본때문에 강적한쪽을 택하여 불길한 사태를 빚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다 심한 실책은 黑81. 국후검토때 白成雲5단은 참고도의 수순을 추천했다. 우선 黑1이하 5를 선수하고 7이면 白16이하 3으로 궁이 되지만 黑로서 17、19로 살아가게 된다. 黑A는 「B」에는 白「ー」.



趙南哲8단도 이에 찬동하고 『黑이 후수로 산뒤 白에게 실전보의 「가」자리를 두게하면 덤이 문제지만 일단은 계가바둑』이라고 해설했다. 河7단으로서는 실로 할말도 없는 대착각이었다. 【一凡】

京畿、2년만에 우승奪還

朴京德·尹忠求등 맹활약
서울·忠南의추격 뿌리쳐

제28회 京釜大驛傳폐막…최우수選手에 朴京德
종합 2位에 忠南·3位서울

2年만에 우승기안은 京畿대표 한국일보 洪惟善발행인이 영예의 종합우승을 차지한 京畿팀에 우승기를 수여하고있다。

지난8일 釜山시청앞을 출발, 서울을향해 1천2백여리(4백91·3㎞)를 달려온 제28회 부산―서울간역전대경주대회(한국일보社·日刊스포츠·대한육상경기연맹 공동주최)는 京畿가 제26회대회서 우승한이후 2년만에 패권을되찾은가운데 13일 섬대회 폐막되었다.

제3구간부터 서울을 제치고 선두에 나섰던 京畿는 종반 서울·충남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25시간6분51초를 기록,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경기는 天安―서울간 최종구간(94·4㎞)서 朴京德·尹忠求가 각각 제2、3소구간서 신기록을 세운데 힘입어 선두에 나선후 후속주자들의 역주로 4시간45분37초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결승점에 1착으로 골인했다.

전날까지 서울에 31초뒤졌던 충남은 25시간13분46초로 종합2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제1소구 鄭晩和가 소구간 신기록을 세웠으나 [illegible] 25시간17분31초로 3위에 머물렀고 경남은 26시간2분1초로 4위를 기록했다.

최종일 레이스서 소구간신기록 4개가 나와 이번대회서 모두 소구간신기록 17개, 구간신기록 3개, 타이기록 1개가 수립됐다.

한편 이번대회서 경기의 朴京德은 최우수선수로 뽑혔으며 서울의 金周龍이 우수선수상, 경기의 尹忠求가 최우수신인상, 경남의 趙在龍이 신인상을 각각 받았다. 이날 최종일레이스는 충남과 서울의 2위다툼, 선두 경기추격으로 [illegible]

협찬: 프로-스펙스 국제상사(주)

<최종일 기록>
(釜山―서울 491·3㎞)

①	경 기	25시간06분51초
②	충 남	25시간13분46초
③	서 울	25시간17분31초
④	경 남	26시간42분01초

<제6區間 기록>
(天安―서울 94·4㎞)

①	경 기	4시간45분37초
②	충 남	4시간47분14초
③	서 울	4시간51분30초
④	경 남	5시간04분51초

※종전최고=경기 4시간44분40초

<小區間 기록>
(☆표는 대회신)

◇제1소구(天安―成歡 13·4㎞)

①李洪烈	(충 남)	39분28초
②[illegible]	(경 기)	41분04초
③[illegible]	(서 울)	42분44초
④河正鎬	(경 남)	44분44초

◇제2소구(成歡―平澤 11·0㎞)

☆①朴京德	(경 기)	31분30초
②鄭鍾模	(서 울)	32분53초
③李壽熙	(충 남)	32분56초
④金南石	(경 남)	34분12초

※종전=朴京德(경기) 31분39초

◇제3소구(平澤―西井里 8·2㎞)

☆①鄭晩和	(서 울)	24분06초
☆②尹忠求	(경 기)	24분17초
③李壽善	(충 남)	25분35초
④李相寅	(경 남)	30분16초

※종전=송준규(경기) 24분33초

◇제4소구(西井里―烏山 10·8㎞)

①金周龍	(서 울)	32분04초
②金章鎰	(경 기)	32분16초
③尹濟基	(충 남)	33분13초
④柳尙根	(경 남)	36분28초

◇제5소구(烏山―餠店 8·0㎞)

①宋俊圭	(경 기)	24분03초
②俞炳觀	(충 남)	24분23초
③李[illegible]根	(서 울)	25분07초
④金東大	(경 남)	26분54초

◇제6소구(餠店―水原 8·5㎞)

①元鍾[illegible]	(경 기)	25분39초
②金鶴[illegible]	(충 남)	25분56초
③[illegible]	(서 울)	26분26초
④鄭潤植	(경 남)	27분02초

◇제7소구(水原―軍浦 12·5㎞)

①柳在聖	(경 남)	38분39초
②李承範	(경 기)	38분48초
③朴英培	(충 남)	38분52초
④柳文鍾	(서 울)	39분39초

◇제8소구(軍浦―始興 11·6㎞)

☆①徐炳大	(충 남)	35분12초
②成[illegible]根	(경 남)	35분32초
③吳[illegible]在	(서 울)	35분43초
④[illegible]	(경 기)	36분21초

※종전=鄭潤植(경남) 35분24초

◇제9소구(始興―汝矣島 10·4㎞)

①趙在龍	(경 남)	31분04초
②裵鍾煥	(충 남)	31분39초
③李洪植	(경 기)	31분39초
④車漢植	(서 울)	32분48초

◇각팀 기록차

①~②	6분55초
②~③	3분45초
③~④	1시간24분30초

◇개인상
▲최우수 선수상=朴京德(경기)
▲최우수 신인상=尹忠求(경기)
▲우수 선수상=金周龍(서울)
▲신인 선수상=趙在龍(경남)
▲장려 선수상=俞炳觀(충남)
▲지도상=車大爲(경기코치)

서울은 제3소구에서 鄭晩和가 신기록을 세우는등 역주를 [illegible] 文鍾 車漢植등 주자들이 제페이스를 내지못해 최종구간에서 충남에 2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한편 경기는 제2소구에서 朴京德이 자신의 종전 최고기록을 9초 단축하는 신기록을 수립, 선두에나선후 제3소구에서 尹忠求가 이번대회서 3번째신기록을 작성하는 호조에 힘입어 끝까지 선두를 지켰다. 경남은 趙在龍이 마지막소구간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5시간4분51초로 4위에 그쳤다.

시상식 거행 한국일보 강당서

제28회 부산―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 시상식이 13일하오4시반 한국일보 12층강당에서 각 시도 임원·선수와 육상인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이자리서 한국일보사 발행인은 1위 경기, 2위 충남, 3위 서울팀에 우승기와 상장 상패를 수여한후 『한국 마라톤 중흥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서는 보란듯 월계관을 따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은 육상경기연맹 金昌根부회장의 만세삼창으로 끝났다.

한국민속 舞踊團 印度서 특별공연

【뉴델리PTI=聯合】 한국민속무용단은 14일 자와할랄·네루 초대印度수상의 탄신기념일을 맞아 印度에서 특별공연을 갖는다.

민속무용단의 이번 印度특별공연은 印度문화교류협회(ICCR)가 주관하고 있는 자와할랄·네루 기념기금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5명으로 구성된 이들 국립무용단(단장 조영구)은 뉴델리 아시안게임을 기념한 각국 민속축제에 참가하기위해 13일 뉴델리에 도착한다.

한국민속무용단의 印度방문은 지난2년내 두번째다.

민속무용단의 공연레퍼터리는 花冠舞·扇子舞·부채춤·탈춤·獅子舞·농악등 韓國고유의 전통무용과 음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나나껍질로 닦아 핸드백에 묻은손때

○…핸드백과 같은 가죽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손때가 묻어서 더러워진다.

타닌으로 무두질한것이 많은 갈색과 흑색의 경우는 바나나껍질안쪽의 흰부분으로 닦으면 놀랄만큼 깨끗해진다. 특히 닦아서 하얗게된부분도 원래의 색으로 되돌아와 새것처럼 깨끗해진다.

이는 바나나껍질속에 들어있는 다량의 타닌의 효과때문이다.

도금벗겨진 나이프 牛乳에 담갔다손질

○…은도금한 나이프나 포크등은 오래 사용하면 도금이 벗겨지고 만다. 도금이 벗겨진 부분을 우유를 넣은 용기속에 약 1시간정도 담가두었다가 꺼내 마른 헝겊으로 닦는다.

빛깔이 흐려질때마다 이런방법으로 손질을하면 언제나반짝거리는 상태로 사용할수가 있다.

방안의 담배연기는 양초켜서 없애도록

○…많은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담배를피우면 방안에 연기가 자욱해진다. 양초에 불을 켜면 된다.

촛불은 실내의 탁한 연기를 흡수하는 작용이 있어 담배연기가 감쪽같이 없어진다.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환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Eglinton
Bayview
Millwood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쉴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최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밭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바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운전 개인지도, 서쪽 끝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 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인수, 인계 일절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6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도넛숍에서 일할 여자분. 주중과 주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4-9325

(오토바디숍 헬퍼 구함)
-자동차 일에 취미 가진 남자.
-주 40시간(년봉: 1만~1만2천불)
-학교에 보내 라이센스 받을 때까지 트레이닝 코스를 밟게 함.
전화 : 533-8507, 8508 Mr. 람

밀크스토아 메니저 구함.(오타와 지역)
약간의 보증금.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624-5817(토론토)

그로서리 스토아 메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젊은 부부 환영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5-9270

씨알학교에서 서쪽버스를 운전할 분과 태권도 선생님을 급히 찾읍니다. 겸하시면 더욱 환영합니다.
전화 : 960 -0074

그로서리 스토아 캐쉬어 구함.
남·녀 불문. 파트타임.
전화 : 691-3666

일요일만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12시~8시까지
전화 : 921-0624

공장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풀타임.(Markham & Hwy 401)
전화 : 438-0380

5년 경력있는 Auto body man구함.
좋은 보수와 좋은 컴미숀. 좋은 주위환경
깨끗하고 좋은 Shop.
37 Primrose Ave. Tor.
전화 : 533-8507 Mr. Lam(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메니저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83-0134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구 직

스카브로지역 가게에서 일할
Cashier 또는 Helper 필요하신분
(17세, 19세 여학생임) 전화 : 291-4547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개 인 지 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실껏 지도. 초보자 환영.
전화: 243-7752(저녁7시 이후)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그로서리 가게와 빌딩 매매
토론토서 20마일 북쪽. 아스킹: $155,000+스탁
물게지 가능. 전화 : 1-939-2341 Mr. 조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재봉틀 Simpson's 나무책상포함 ◉$195.00
Good-Condition.
전화: 767-1702 김(오후6시 이후)

빌딩 매매 또는 렌트합니다.
아무 사업이나 적당하고 좋은 위치. 좋은 가격.
982 Pape Ave. 전화 : 422-5029 Mik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리스 : 5년
전화 : 535-683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스토어 매매. 이층에 살림집 있음.
주매상: $3,500이상. Video머신. 로타리오 머신에서
월 1,000불이상 수입. 전화 : 1-383-8232(Hamilton)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이상.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전화 : 653-6336, 598-4327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게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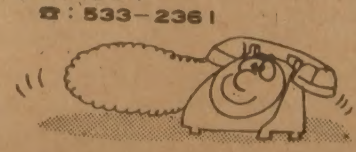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많은 권리금 기대하지 않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Baskin Robin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Metro 바로 북쪽. 좋은 매상.
자세한 문의는 JOE DI LILLO(조·디·릴로)
전화 : 746-4360
Hollywood Real Estate Ltd.

---

2 Door 팝 쿨러 팝니다.
Good Condition 가격 : $350.-
전화 : 245-0711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육)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분배수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